

산업단지 노동자의 43.8% 휴게실 없음
20인미만 사업장은 58.2% 휴게실 없음
50인미만 사업장은 40.6% 휴게실 없음

안전한 노동! 쉼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2022.7.6(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

주관 민주노총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당일 토론회는 민주노총  YouTube 계정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민주노총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의원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제2세미나실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주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 박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인사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강은미 의원(정의당)	4
류호정 의원(정의당)	5
이은주 의원(정의당)	6

[좌장]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주발제]

2022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분석발표(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7
---	---

[지정토론]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43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	51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	55
나상명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61
김길중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63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65

[전체토론]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의 진일보한 이 개정 법안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제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큼니다. 하지만, 법의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되었고, 민주노총은 온전히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장은 없을뿐더러 요구가 절실한 작은 사업장을 외면하는 허울뿐인 법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과 20억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배제하고,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이 하위법령은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전후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시행을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담아 1만인 서명운동 진행하고 전국 노동지청 앞 1인시위,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투쟁해왔습니다. 3~4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노조가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4천여 명의 휴게권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의 50%가 넘는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 저임금, 생산직, 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실의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와 기자회견, 공동 투쟁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에 대한 절실한 요구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장 개선은 절실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게실 하나 없이 눈치 보며 짬내서 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폭염 속에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야외에서 자재들 위에서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이 법이 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장의 실태가 분명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휴식권을 위한 법이 되려 휴식권을 배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 7월 6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



국회의원 강은미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휴게시설 의무화 법시행에 맞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해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을 제출했고,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시 근로자수에 하청노동자도 포함해 휴게시설 설치 책을 원청 사업주가 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해 전체 근로자 중 약 40%에 달하는 2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법 적용 제외로 쉼 권리를 박탈 당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43.8%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고,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조차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더 들어가면 휴게시설 설치 유무뿐 아니라 열악한 휴게시설의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임금이나 고용처럼 중요한 노동권의 한 부분임에도 모호한 휴게시설 설치기준으로 인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면피용 휴게시설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듯 휴게권 보장 문제 역시, 사업장 규모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차별없이 평등하게 쉼 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휴게권 보장에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작은 사업장에 노동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휴식권은 복지나 사용자의 특혜가 아니라 노동권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휴게공간에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단한 노동으로 잠시나마 제 몸 하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창고나 계단 밑, 탈의실 등이 휴게실로 변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은 매우 비좁거나 환기도 잘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 노동자 4,036명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 저임금 사업장,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지만 노동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몰각됐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제약을 두면서 정착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노동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차별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하위 법령 마련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휴게실 최소 면적 또한 1인당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3개 지역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다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함께해 주신 노동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발제해 주신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으로는 일터의 열악한 휴게공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님을 비롯하여 토론 패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체·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힘겨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2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며, 수만 명의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은 질병과 과로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업무 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자의 휴식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중 43.8%가 휴게실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저임금·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3년 전 여름, 폭염을 피해 휴게실을 찾은 서울대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찜통 공간에서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쾌적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지는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은 배제됐습니다.

휴식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민 기본권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근대적 과로 사회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안전, 건강, 휴식이 보장되는 생활안전보장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이자 인권인 휴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022년 8월 휴게실 의무화를 앞두고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일대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 노동자 설문조사를 진행함. 2022년 3월 23일~ 4월30일 까지 총 4,021명의 응답을 결과를 분석하여 이후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1.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동실태조사

1) 전국 산업단지 실태조사

- 응답 설문지 : 4,036명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으로 하되 (코로나 19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익숙해진 여건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
- 조사 문항 개요:

1. 기본문항. 2. 업종 및 직종, 고용형태. 3. 노동시간과 임금. 4.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5. 복지제도. 6. 휴게실 7. 기타

2) 질적 조사

- 산업단지 노동자 및 실태조사 응답자 30명

3)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

- 시기: 3월 21일~ 4월 27일

지역	산업단지	사업단위	실태조사 현황
인천	주안, 부평	인천본부, 금속인천지부	- 3월 23일 갈산역 /30일 동춘역 - 4월 5일 기계산단 /21일 주안산단역
경기안산	반월시화	시흥·안산지역지회	4월 중순 지역설문조사 캠페인 지역 미조직노동자 카톡방, 카카오톡 채널 활용 분회별 미조직 노동자 인적망 활용
충북	음성, 청주	충북본부, 금속대전충북지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주 1회 선전캠페인 (실태조사)
전북	완주, 팔복동 영세 사업장	전북본부, 금속전북지부, 현대차 전주위원회	3월 29일~ 4월 21일 중식 11~13시 /총 12회



			완주 3공단, 전주 팔복동, 서수농공단지, 정읍 2공단
광주전남(금속)	광주하남, 전남농공단지.	금속광전지부, 광주지역지회	4월 중순 산단거점 대면 실태조사, 온라인 실태조사 병행
제주	화북	제주본부	4월 5일부터 대면 실태조사 예정
부산	서부권 녹산, 동부권 일반산단.	부산본부, 금속부양지부, 동부산지역지회	산단 거점과 연결되는 지하철역 인근 대면 실태조사, 온라인 실태조사 병행
경북	포항	경북본부, 금속포항지역지부	4월 4일~ 4월 18일 / 총 6차 / 포항 공단식당, 경주외동 공단 등
대구	성서	대구본부, 금속대구지부, 성서공단노조	산단 거점 지하철역 대면 실태조사 계획, 온라인 병행
서울	서울디지털	서울본부, 금속서울지부, 노동자의 미래사업단	3월 28일~ 4월 21일 / 총 21차/ 코싸벨 광장, 관악지청, 남구로역, 독산역, 가디역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요 거점
세종충남	천안 풍세 산단	세종충남본부, 세종충남희망노동조합 세종지역노조, 금속충남지부, 노동권익센터	4월 5일~ 4월 21일 / 총 6회 / 풍세산단, 천안 2공단, 천안 4공단, 백석공단.
경남	창원, 김해	경남본부, 금속경남지부	4월 8일~ 4월 21일 / 총 5차 / 창원 SK 테크노, 김해 골든 루트 상가, 팔용동 제3 아파트공장, 내삼공단. 김해테크노밸리
대전	대전	대전본부, 화섬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대전충북지부	3월 31일~ 4월 18일 /총 3차 / 유성구 관평동 미건 테크노월드, 대덕 산단네거리, 대덕 비즈센터

4) 사업 흐름 개요

2월	3월	4월	5월 ~7월	하반기
준비사업	실태조사 (3.21~4.27)	실태조사 조사결과 분석	중간보고 (5.6) 결과발표 기자회견 (6.20) 국회 토론회	요구 쟁취사업 현장 실질 이행
실태조사 지역확정 지역 공동 간담회 인증샷	작은사업장 차별 없는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지방정부 요구안 마련	작은사업장 차별 없는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산업단지 요구 (공동휴게실 등)	노정 간담회 공단교섭등 초기업 교섭 추동

5) 캠페인 물품

(1) 마스크/ 배너

마스크	배너
 <p>오라오라 KFB4 마스크 전국노동자프로젝트 "우리는 이런 휴게실을 원한다!"</p> <p>산업단지에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전국노동자프로젝트 "우리는 이런 휴게실을 원한다!"</p> <p>산업단지노동자들에 따라 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p> <p>전국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산업 단지에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를 요구 합니다.</p> <p>설문하고 바우 받자!</p> <p>휴게실요구 설문조사 위 QR코드를도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께 답례로 추첨을 드립니다.</p> <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1811-9509</p>	 <p>설문조사 참여하고 KF94 마스크랑 바우 받자!</p> <p>"나는 이런 휴게실을 원한다!"</p> <p>산업단지에 제대로 된 노동자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전국노동자실태조사</p> <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p>

(2) 현수막

<p>2022년 8월 18일부터 법적 의무! ☎ 민주노총 1577-2260 전국금속노동조합 1811-9509</p> <p>제대로 된 노동자휴게실 설치!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p> <p>설문(QR) 참여하고 바우 받자!</p>	<p>2022년 8월 18일부터 법적 의무! 전국 어디든 가입·무로노동상담 ☎ 민주노총 1577-2260 전국금속노동조합 1811-9509</p> <p>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마련하라!</p> <p>영양건강 휴게시설을 제공해주세요!</p>
<p>2022년 8월 18일부터 법적 의무! 전국 어디든 가입·무로노동상담 ☎ 민주노총 1577-2260 전국금속노동조합 1811-9509</p> <p>작은사업장 차별 없이 휴게시설 설치하라!</p> <p>설문(QR) 참여하고 바우 받자!</p>	<p>작은사업장 노동자는 제대로 일 권리마저 없나요? 산업단지 휴게실 실태조사에 함께해주세요</p> <p>☎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 금속산업 노동자 무료 가입·노동상담 1811-9509</p> <p>설문(QR) 참여하고 바우 받자!</p>
<p>이 넓은 공단에 편히 쉬 공간 한 뼘이 없네 제대로 된 노동자휴게실 설치 프로젝트</p> <p>☎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 금속산업 노동자 무료 가입·노동상담 1811-9509</p> <p>설문(QR) 참여하고 바우 받자!</p>	<p>잘 쉬는 게 중요한 건 알지만 쉬지니 불편한 당신 산업단지 휴게실 실태조사에 함께해주세요</p> <p>☎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 금속산업 노동자 무료 가입·노동상담 1811-9509</p> <p>설문(QR) 참여하고 바우 받자!</p>

(3) 리플렛 /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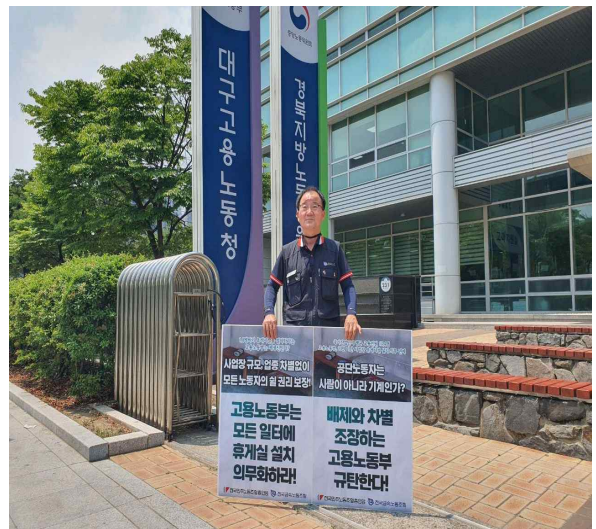


2.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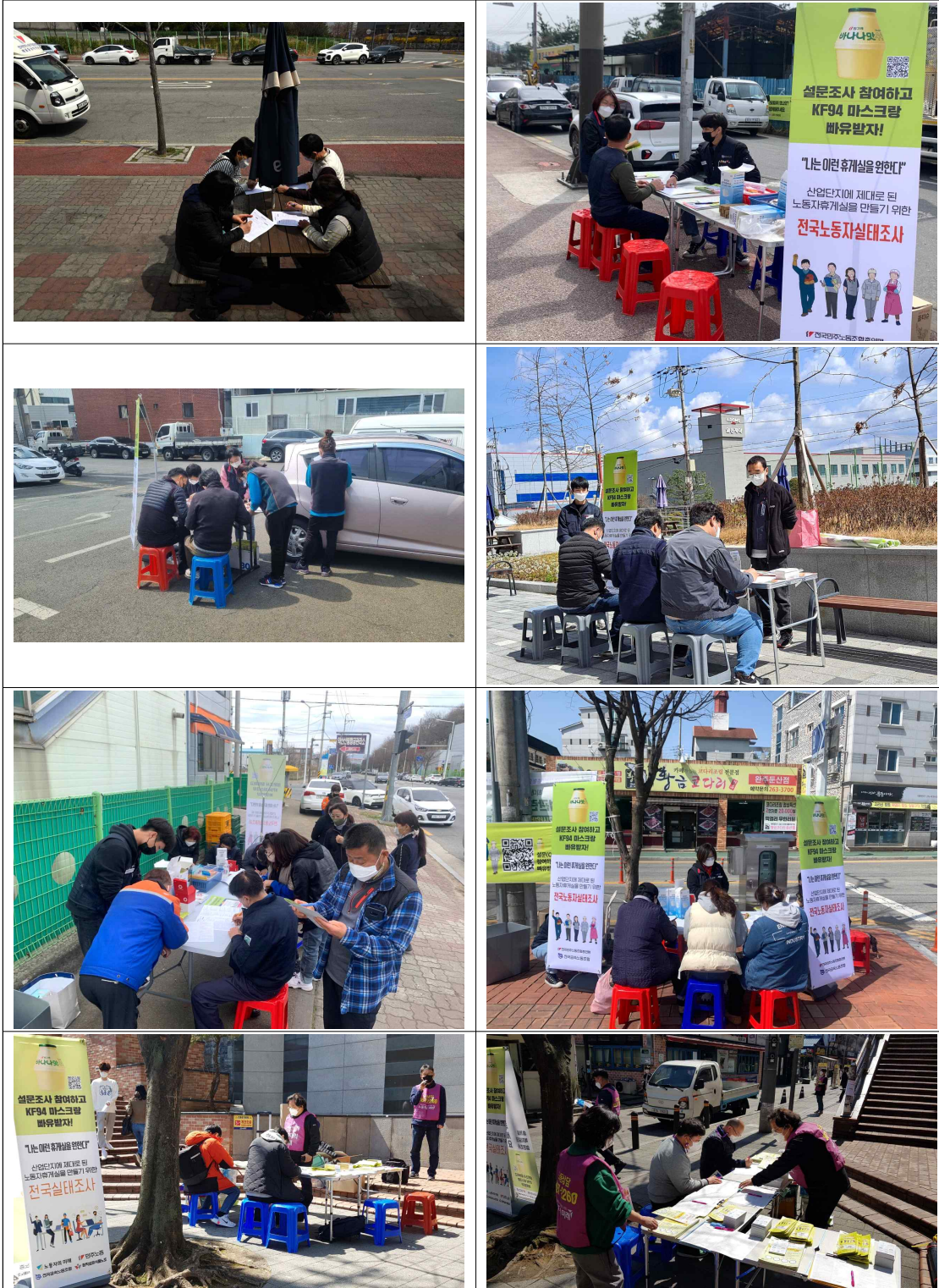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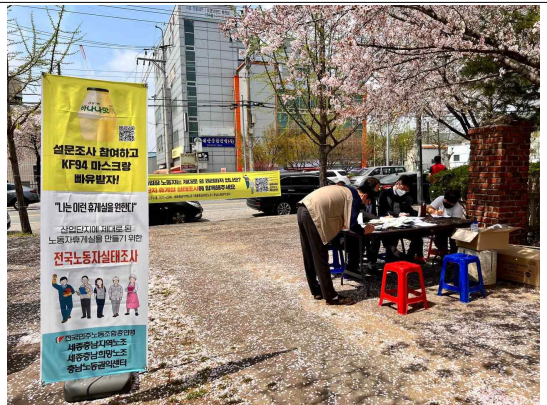






3. 전국 실태조사 캠페인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발 제

2022 산업단지 휴게실 ·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박 준 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2022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장명호 |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산업단지 노동자의 43.8% 휴게실 없어.
휴게실 부족할 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직접적 피해
기존 휴게실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해. 개선할 것 많아.
공동 휴게실 부족한 휴게실의 좋은 대안. 노사정 현실화시켜야

1. 산업단지 사업장 휴게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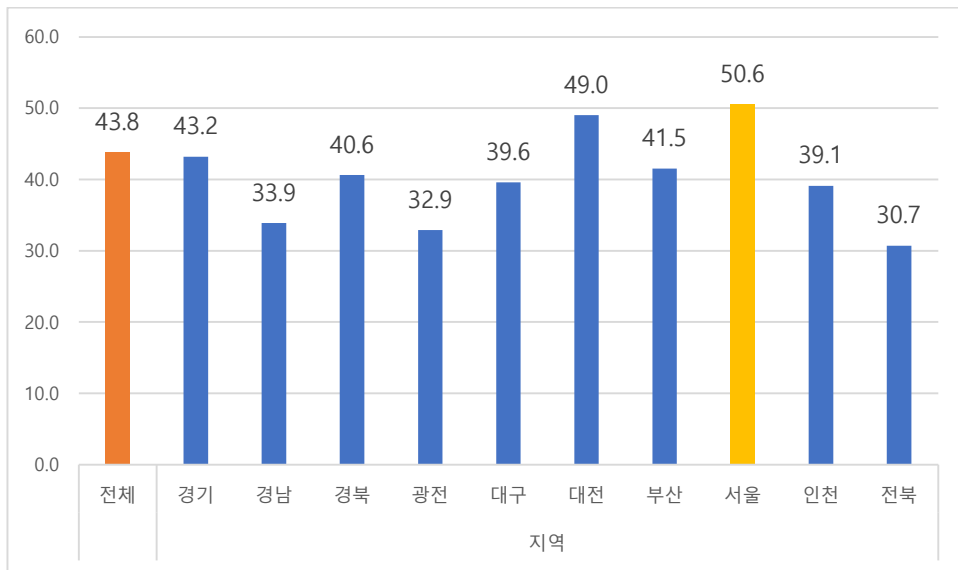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단지 '휴게실 없음' 비중 (%)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1개	1,601	39.8	34.3	42.2	31.1	44.1	40.4	33.3	39.3	38.8	43.0	50.0	44.7	48.9
2개 이상	660	16.4	22.5	24.0	28.3	23.1	20.0	17.7	19.2	10.6	17.9	19.3	22.7	18.2
없다	1,760	43.8	43.2	33.9	40.6	32.9	39.6	49.0	41.5	50.6	39.1	30.7	32.6	33.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지역별 산업단지 휴게실 현황 (전체)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8%가 휴게실이 없다고 대답함.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50.6%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 2명 중 1명이 휴게실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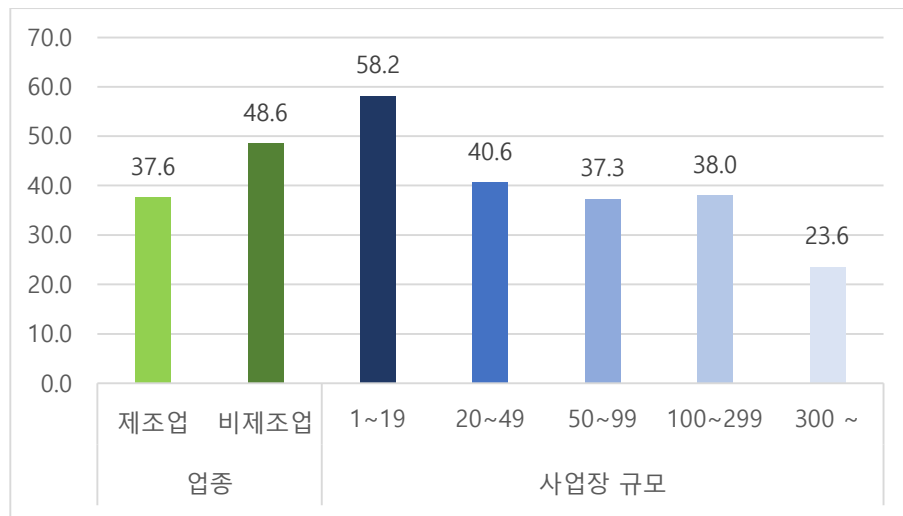


그림 2.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휴게실 없음' 비중 (%)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1개	1,601	39.8	39.6	39.7	36.1	46.7	43.8	39.4	35.5
2개 이상	660	16.4	22.8	11.7	5.6	12.7	18.9	22.7	40.9
없다	1,760	43.8	37.6	48.6	58.2	40.6	37.3	38.0	23.6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휴게실 유무 (전체)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인 것에 비하면 34.7%p나 차이가 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2022년 8월부터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실이 없다는 비중도 적지 않게 나타남. 각각 37.3%와 38.0%임.

	제조업	식품제조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
1개	39.6	48.8	33.9	18.2	38.8	53.3	36.8	42.5	37.4	41.5	43.8
2개 이상	22.8	26.7	11.3	22.7	24.6	26.7	33.3	18.6	20.7	31.6	14.4
없다	37.6	24.4	54.8	59.1	36.6	20.0	29.8	38.9	41.9	26.9	4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제조업 주요 업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비제조업	정화		사업		전문	출판	IT	도		음식		보건		교육	기타		
		건설	재생	금융	부동산	지원	기술	방송	정보	통신	소매	운수	숙박	가사	복지	공공	문화	기타
1개	39.7	22.6	65.4	53.1	38.2	51.5	41.1	36.7	40.0	47.1	37.3	44.1	36.1	31.0	33.7	37.0	47.4	38.9
2개 이상	11.7	9.7	11.5	23.4	8.8	11.0	7.3	6.7	13.7	35.3	8.4	23.7	8.3	0.0	6.4	20.4	15.8	13.9
없다	48.6	67.7	23.1	23.4	52.9	37.6	51.7	56.7	46.3	17.6	54.2	32.3	55.6	69.0	59.9	42.5	36.8	4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비제조업 주요 업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표 2>에서 보듯 제조업(37.6%)보다는 비제조업(48.6%)에서 휴게실이 없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과 <표 4>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업종별(중분류)로 보면, 섬유의복(54.8%), 목재종이(59.1%), 전기전자(41.9%), 건설(67.7%), 부동산(52.9%), 전문기술(51.7%), 출판방송(56.7%), IT·정보(46.3%), 도소매(54.2%), 음식숙박(55.6%), 보건복지(59.9%) 업종에서 휴게실이 없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전통적으로 영세하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설, 섬유의복, 음식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IT·정보 통신 등 신흥 산업에서도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은 것.

“휴게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회사 1층에 탕비실이 있는데, 제 방보다 작아요. 의자 하나, 작은 소파, 커피 머신기가 전부예요 ...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자리에서 잠깐 숨 돌리는 게 휴식의 전부예요.” (345, 제조업, 전문직)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1개	1,601	39.8	44.8	37.8	34.5	39.3	40.1	37.3	38.8	44.3	48.9
2개 이상	660	16.4	24.0	13.3	14.5	14.1	8.4	7.6	13.2	27.6	17.9
없다	1,760	43.8	31.2	48.9	50.9	46.7	51.5	55.1	47.9	28.0	33.2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직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표 5> 직종별로는 생산직보다는 사무판매직(비생산직)에게서 휴게실이 없다는 비중이 높음 48.9%임. 물론 생산직이라고 휴게실이 충분한 것은 아님. 31.2%가 휴게실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

“휴게실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요. 일하는 곳에서 쉬는 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옥상, 야외,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쉬어요. ... 흡연자는 잠깐씩 나갔다가 들어오고, 비흡연자는 화장실에 앉아서 쉬거나 실험실에서 잠깐씩 걸어 다니며 이야기해요. 일하는 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351, 제조업, 생산직)

2. 휴게실 미설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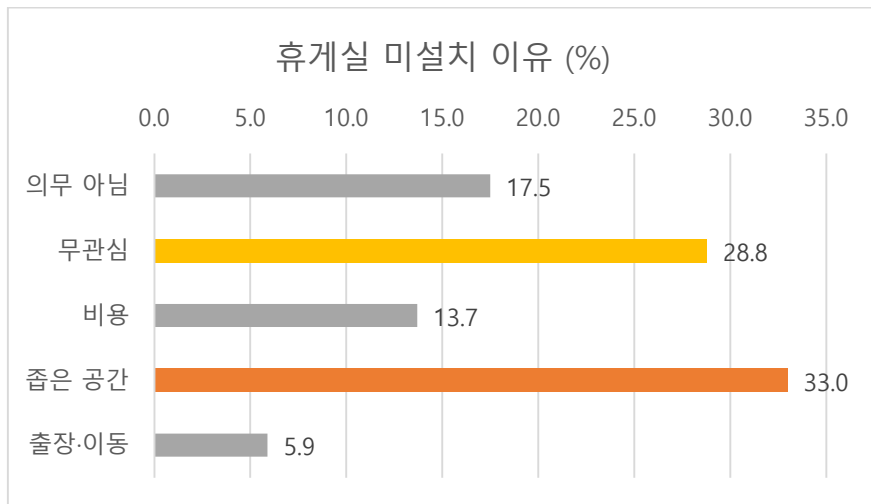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산업단지 휴게실 미설치 이유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의무 아님	306	17.5	202	109	7.1	106	11.8	21.3	22.3	18.6	15.8	17.9	11.6	24.1
무관심	504	28.8	263	28.1	28.6	38.3	32.7	27.7	28.7	28.4	30.8	20.9	37.2	27.6
비용	239	13.7	9.6	15.6	35.7	27.7	19.1	6.4	7.4	12.8	12.5	17.9	16.3	13.8
좁은 공간	577	33.0	35.9	37.5	23.8	14.9	29.1	31.9	33.0	34.9	33.3	28.4	18.6	31.0
출장·이동	104	5.9	7.1	7.8	4.8	6.4	6.4	10.6	7.4	4.0	5.0	14.9	16.3	3.4
다른 공간	20	1.1	1.0	0.0	0.0	2.1	0.9	2.1	1.1	1.2	2.5	0.0	0.0	0.0
계	1,7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지역별 휴게실 미설치 이유 (전체)

‘회사가 왜 설치하는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좁은 공간 탓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체 33.0%임. 두번째로 손꼽힌 이유는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28.8%로 나타남. 비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13.6%밖에 안 됨.

“옛날 사무실에는 휴게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하면서 휴게실이 없어졌어

요. 휴게공간을 배제하고 설계한 거예요. ...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58, 제조업,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곳에도 다 휴게시설이 있어요. 소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작년에 새로 개장한 곳인데,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안 넣어줬어요. 아예 고려하지도 않은 거예요. 도시락 먹을 공간도 없고, 나가서 먹고, 차에서 먹고 해요.” (1025, 사업서비스업, 시설관리)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의무 아님	306	17.5	17.5	17.6	14.7	19.1	16.8	22.4	23.0
무관심	504	28.8	31.7	27.8	27.7	29.2	35.1	29.7	23.0
비용	239	13.7	14.7	12.6	11.9	14.0	13.9	18.3	15.1
좁은 공간	577	33.0	31.1	33.7	37.9	29.6	30.7	23.6	30.9
출장이동	104	5.9	4.0	7.1	6.9	6.3	3.5	4.1	6.3
다른 공간	20	1.1	0.9	1.2	0.8	1.8	0.0	2.0	1.6
계	1,7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미설치 이유 (전체)

비용보다도 공간이 좁거나 무관심해서라는 응답비중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게 확인됨. <표 7>에서 보듯 20인 미만 사업장의 응답자 중 37.9%가 좁은 공간 문제를 꼽은 것. ‘공간이 좁아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대기업장에서도 높게 나타남. 30.9%는 좁은 공간문제를 꼽고, 23.0%는 무관심을 지목함. 휴게실 문제는 비용보다는 사업주의 관심과 함께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업무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나아가 가까운 공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걸 시사.

3. 좁고 부족한 휴게실, 파견노동자에게 제한된 휴게실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전체	91.2	74.0	44.5	50.6	64.5	51.4	60.2	59.5
경기	92.7	73.8	45.0	48.8	67.7	56.2	65.0	63.1
경남	91.3	73.2	53.5	56.7	70.9	56.7	66.9	74.0
경북	87.3	77.8	38.1	46.0	58.7	61.9	66.7	65.1
광전	91.7	64.6	53.1	55.2	68.8	67.7	71.9	63.5
대구	84.6	76.9	40.2	49.1	65.1	40.2	43.2	52.7
대전	89.8	77.6	38.8	55.1	63.3	59.2	65.3	69.4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부산	92.5	67.9	38.1	45.5	64.9	64.9	66.4	61.9
서울	93.6	74.8	42.9	50.4	63.5	47.4	58.4	55.4
인천	81.8	72.7	41.7	41.7	62.6	45.5	51.3	57.2
전북	93.4	81.5	53.0	60.3	70.2	51.7	67.5	62.9
충남	88.8	66.3	47.2	50.6	46.1	43.8	50.6	56.2
충북	94.9	76.3	54.2	59.3	69.5	64.4	81.4	71.2

표 8. 지역별 산업단지 휴게실 상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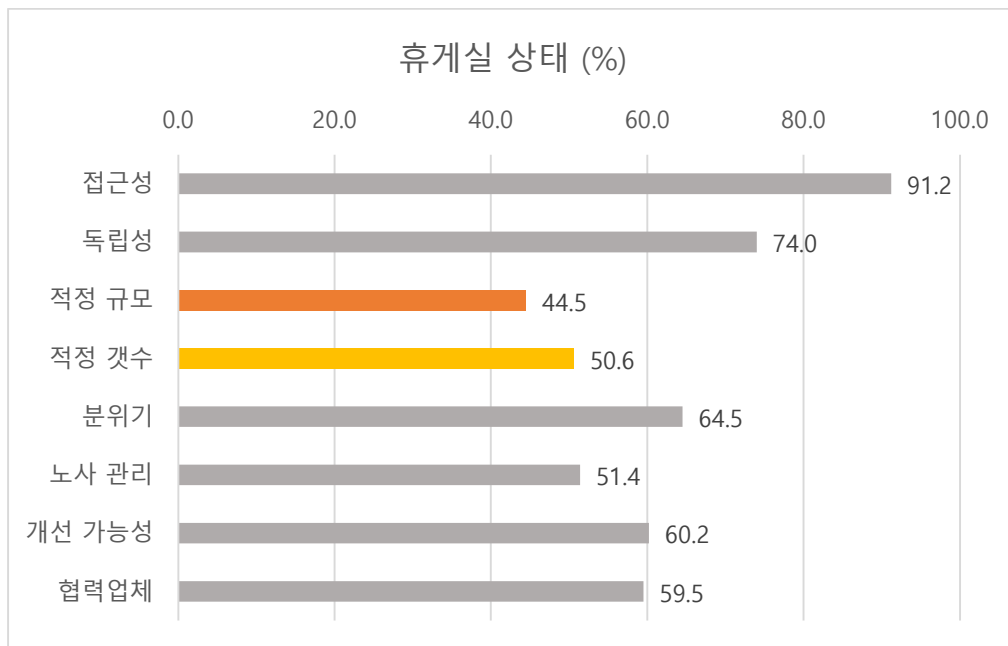


그림 4. 산업단지 휴게실 상태

휴게실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그림 4>와 <표 8>에서 보듯, ‘5분 내 거리에 있는가’(접근성)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대답할 뿐임. ‘휴게실이 독립적인 공간인가’(독립성)에 대해서는 74.0%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사업장 인원 대비 ‘공간이 좁은가’(적정 규모)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이 53.5%로, 휴게실이 있다 해도 좁다는 의견이 더 많음. 44.5%만이 ‘좁지 않다’고 대답함. 회사 규모 대비 ‘휴게실 숫자가 부족한가’(적정 개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해 겨우 과반을 넘긴 수준.

‘노사가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노사 관리)라는 질문에는 51.4%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휴게실 운영,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60.2%만이 그렇다고 대답함. ‘협력업체, 하청업체도 같이 쓸 수 있는가’(협력업체)에 대해서는 59.5%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함.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전체	91.2	74.2	44.9	50.9	64.5	51.3	60.3	59.4
제조업	91.1	75.4	46.9	51.6	66.8	52.4	60.2	63.9
비제조업	91.3	73.1	42.9	50.3	62.3	50.2	60.5	55.1
1~19	93.2	72.8	52.3	67.0	68.6	50.0	61.1	59.6
20~49	93.1	72.7	46.1	53.7	67.1	48.3	57.4	57.8
50~99	89.3	72.2	39.7	44.1	59.7	48.4	56.2	58.8
100~299	87.6	76.1	39.3	35.3	60.0	53.5	59.0	60.2
300 ~	91.0	77.3	41.1	43.3	64.1	57.7	67.2	61.1

표 9. 업종별, 규모별 산업단지 휴게실 상태 (전체)

<표 9>에서 보듯, 접근성(5분 거리)이나 독립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종으로나 사업장 규모로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하지만 적정한 규모인지, 적정한 개수인지에 대해서는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다는 100인 전후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박하게 평가하고 있음.

20인 미만 사업 노동자들은 52.3%가 휴게실이 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노동자들은 60.7%가 휴게실이 좁다고 평가하고 있음. 휴게실 개수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 역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게실 개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35.3%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휴게실이 있더라도 공간이 좁거나 개수가 부족한 것.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탕비실하고 탈의실이 전부예요. 탈의실은 멀리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휴게실은 없고 흡연실만 있어요.” (3684, 제조업, 반숙련직)

“휴게실 겸 회의실·면담실이 있고, 작은 소파가 있어요. 휴게실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공간도 좁아서 휴식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피곤한 사람 한두 명만 소파에서 쉬는 정도예요. 일찍 출근해 일찍 점심 먹는 사람이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4115, 제조업, 생산직)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없다	989	43.7	408	30.7	28.6	41.7	53.9	26.5	32.1	48.4	41.7	48.3	39.3	44.1
같이 사용	1,032	45.6	485	56.7	46.0	49.0	39.6	63.3	51.5	43.2	43.9	39.1	47.2	54.2
따로 사용	240	10.6	108	12.6	25.4	9.4	6.5	10.2	16.4	8.3	14.4	12.6	13.5	1.7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 지역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휴게실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없다	989	43.7	39.7	48.4	48.2	44.6	46.1	42.5	35.5
같이 사용	1,032	45.6	51.0	40.1	44.1	49.1	44.4	45.0	45.5
따로 사용	240	10.6	9.3	11.6	7.8	6.3	9.6	12.4	19.1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 업종별, 규모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휴게실 (전체)

하청·협력업체와 휴게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45.6%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남(<표 11> 참조). 다만 따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9.1%로 작은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신 하청·협력업체 휴게실이 아예 없다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듭.

“SI(System Integration)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파견이예요. 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원청에 가서 해야 하니깐요. ... 거기 휴게실이 있는데, 원청 사원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카페트리에 가도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복지포인트로만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선 쉴 공간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파견 나가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 휴게실 문제는 파견 받는 회사가 해결해줘야 해요. 그 회사를 위해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른 척해요.”(4442, 정보통신, 사무직)

“원청 휴게실하고 협력업체 휴게실하고 따로 있어요. 시설·설비도 차이가 크고요.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면 눈치 줘요. 근무지 이탈이라는 거예요. ...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휴게실이라기보다는 상주하면서 작업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나마 저희가 쉴 곳이에요. ... 곰팡이 슬고, 환풍기도 작동 안 하고, 보수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여기 휴게실 보수하려면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아요.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청결해야 휴게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간마저 원청에서는 자꾸 없애려고 해요.” (4397, 제조업, 반숙련직)

위 인터뷰 내용은 분리된 공간에서 쉬는 하청노동자(반숙련직)와 이마저도 없는 파견노동자(사무직)가 원청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파견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원청이 직접 소비하는 만큼, 원청이 휴게공간을 제시하고 기존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게공간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이 또한 원청이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원청이 나서야 휴게공간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

4. 휴게실 이용 현황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매일	1,131	50.0	50.0	59.1	47.6	65.6	63.3	63.3	53.7	40.7	56.7	55.0	42.7	59.3
주 1~2 회	478	21.1	23.5	16.5	15.9	15.6	16.6	22.4	26.1	24.2	20.3	15.2	20.2	15.2
월 1~2 회	98	4.3	5.8	2.4	3.2	2.1	3.5	2.0	2.2	6.2	1.6	4.0	3.4	0.0
이용 안 한다	554	24.5	20.8	22.1	33.3	16.7	16.6	12.2	17.9	28.9	21.4	25.8	33.7	25.4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지역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매일	1,131	50.0	54.6	45.4	43.9	46.3	53.3	61.0	74.6
주 1~2 회	478	21.1	19.9	22.4	23.6	24.6	18.4	14.7	8.5
월 1~2 회	98	4.3	4.2	4.5	4.4	5.2	4.0	2.0	5.1
이용 안 한다	554	24.5	21.3	27.8	28.2	23.9	24.2	22.3	11.9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3. 성별, 세대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자의 휴게실 이용 빈도는 <표12>와 <표 13>과 같음.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0.0%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6%로 여성(45.4%)보다 높게 나타남. 세대별로는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각각 53.3%, 61.0%, 74.6%)은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이 절반을 넘고 있음. 20대와 30대는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3.9%와 46.3%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40대와 50대만큼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님. 한편 20대의 경우 아예 이용 안 한다는 응답도 28.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휴게실이 따로 없어요. 여성들은 전부 업무하는 위치에서 쉬어요. 생산 파트 분들 (남성)의 경우 탈의실에서 밥 먹고 잠을 자요. 탈의실이 성별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거의 남자 직원들만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연구실 빈 공간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서 그냥 작업복을 입고 다녀요. ... 신입들은 탈의실에서 휴식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인지 자기 차에서 쉬기도 하더라고요.” (3795, 제조업, 반숙련직)

“탕비실에서 잠깐 쉬고 있으면 자꾸 말을 걸어요. 자기 자랑 늘어놓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동료하고 따로 커피숍에 가요.” (9, 제조업, 사무직)

위 사례에서 보듯 휴게실이 성별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들의 휴게실 접근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음.

또 아무래도 신입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휴게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여성과 청년의 휴게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휴게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매일	1,131	50.0	63.1	42.8	40.9	42.0	44.0	67.9	58.7	64.4	60.6
주 1~2회	478	21.1	14.8	24.6	19.2	25.0	41.3	17.0	12.7	13.4	20.0
월 1~2회	98	4.3	2.9	5.1	6.3	5.0	4.0	0.0	3.2	3.0	2.3
이용 안 한다	554	24.5	19.2	27.4	33.6	28.0	10.7	15.1	25.4	19.1	17.1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4. 직종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휴게실 이용 현황을 직종별로 보면(<표 14>) 사무직(42.0%)과 전문직(40.9%), 판매직(44.0%)보다는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생산직¹, 즉 숙련직(58.7%), 반숙련직(64.4%), 단순직(60.6%)에게서 높게 나타남. 서비스직(67.9%)의 휴게실 이용률이 높은 건, 직무 특성(청소, 식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매일	1,131	50.0	53.5	47.5	61.2	55.1	43.8	41.5	40.6
주 1~2회	478	21.1	19.4	21.8	19.3	20.0	23.5	22.6	22.0
월 1~2회	98	4.3	4.0	4.4	3.5	5.2	3.5	4.0	5.6
이용 안 한다	554	24.5	23.1	26.3	16.0	19.6	29.3	31.8	31.8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매일	1,131	50.0	62.4	48.4	48.8	60.2	47.7	47.1	54.0	56.4
주 1~2회	478	21.1	15.0	22.1	20.7	18.6	24.3	18.2	16.0	19.1
월 1~2회	98	4.3	3.2	4.4	5.5	6.8	4.3	5.0	4.0	1.6
이용 안 한다	554	24.5	19.4	25.1	25.0	14.4	23.6	29.7	26.1	23.0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임금, 노동시간과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¹ 생산직은 65.8%가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음. 사무·판매직(비생산직)은 27.1%에 불과. 자세한 내용은 <보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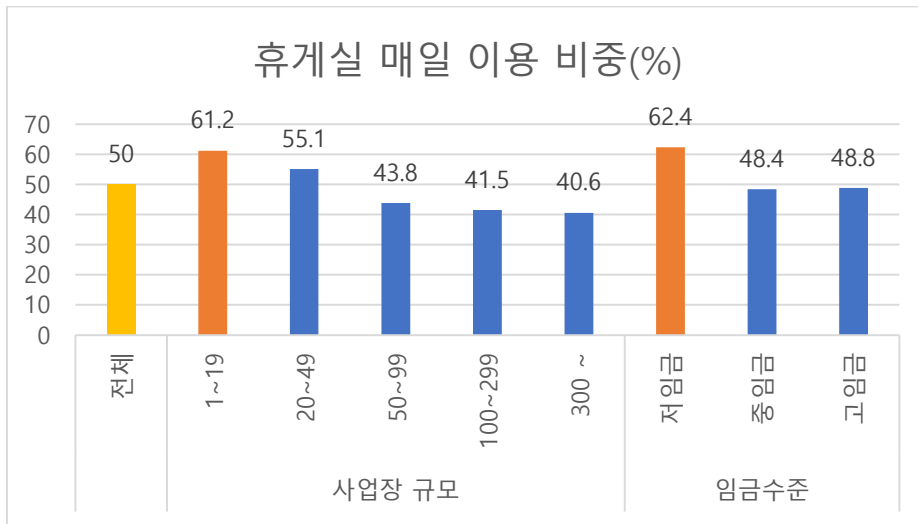


그림 5. 산업단지 휴게실 이용률 (%)

일단 휴게실이 있으면,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노동자가, 대기업보다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사무관매직(비생산직)보다는 생산직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비중이 높음으로 나타남. <표 15>에서 알 수 있듯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가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중은 40.6%이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중은 61.2%로 20%p 이상 차이가 남. 저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 <표 16>에서 알 수 있듯 고임금 노동자의 매일 이용 비중은 48.8%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62.4%임. 식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노동자, 마땅히 밖에서 쉴 곳이 없는 노동자 모두,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임. 휴게실의 필요도나 활용도, 모두 저임금·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높고, 그들에게 더 절실함.

“공간이 좁지만 돌아가며 이용해요. 쉬는 시간엔 항상 두 명 세 명 정도 이용하고, 점심에는 남들 밖으로 나가면 그 사이 뭘 사와서 먹기도 하고, 밥 먹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휴게실에서 뭘 먹은 나가고, 또 누가 들어오면 이들이 일하러 나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써요. ... 공용 휴게실이 생기면 거기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4115, 제조업, 생산직)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멀다	44	8.1	5.8	17.9	19.1	13.3	11.1	0.0	12.5	4.0	17.5	7.9	10.7	6.7
다른 용도로 이용	36	6.6	3.8	7.1	0.0	13.3	3.7	0.0	12.5	7.6	7.5	10.5	0.0	0.0
낙후되었다	92	16.9	19.2	14.3	19.1	26.7	18.5	16.7	20.8	13.6	22.5	13.2	17.9	33.3
눈치보인다	87	16.0	13.5	21.4	19.1	6.7	22.2	0.0	8.3	20.5	7.5	5.3	10.7	13.3
바쁘다	205	37.6	42.3	21.4	23.8	40.0	25.9	83.3	29.2	40.6	32.5	42.1	35.7	40.0
기타 필요없다	27	5.0	3.8	14.3	0.0	0.0	7.4	0.0	4.2	4.4	2.5	13.2	0.0	6.7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내 자리에서 쉬다	17	3.1	19	0.0	9.5	0.0	3.7	0.0	4.2	3.6	2.5	2.6	3.6	0.0
다른 사람 이용	21	3.8	3.8	3.6	9.5	0.0	3.7	0.0	4.2	2.0	7.5	2.6	17.9	0.0
다른 곳 이용	8	1.5	1.9	0.0	0.0	0.0	0.0	0.0	0.0	2.0	0.0	2.6	3.6	0.0
폐쇄	8	1.5	3.8	0.0	0.0	0.0	3.7	0.0	4.2	1.6	0.0	0.0	0.0	0.0
계	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7. 지역별 휴게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체)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였음(37.6%). 여유가 없는 것.

5. 오늘,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휴게실	823	20.6	200	27.1	229	36.0	36.7	20.8	23.1	13.5	22.8	28.7	28.0	25.0
업무공간	1,847	46.2	49.8	44.3	49.5	31.6	30.2	45.8	42.8	50.8	45.0	42.6	40.1	37.5
분리된 실내	417	10.4	11.2	10.9	9.5	10.1	9.1	7.3	13.1	10.2	10.1	13.0	4.5	17.1
개방된 실내	188	4.7	3.3	6.8	4.8	5.0	6.2	8.3	3.9	5.1	3.9	2.8	3.0	3.4
야외, 카페	643	16.1	12.7	8.3	11.4	14.4	15.6	14.6	15.3	19.9	12.7	8.8	18.2	15.9
차량	82	2.0	3.1	2.6	1.9	2.9	2.2	3.1	1.8	0.5	5.5	4.2	6.1	1.1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8. 지역별 휴식공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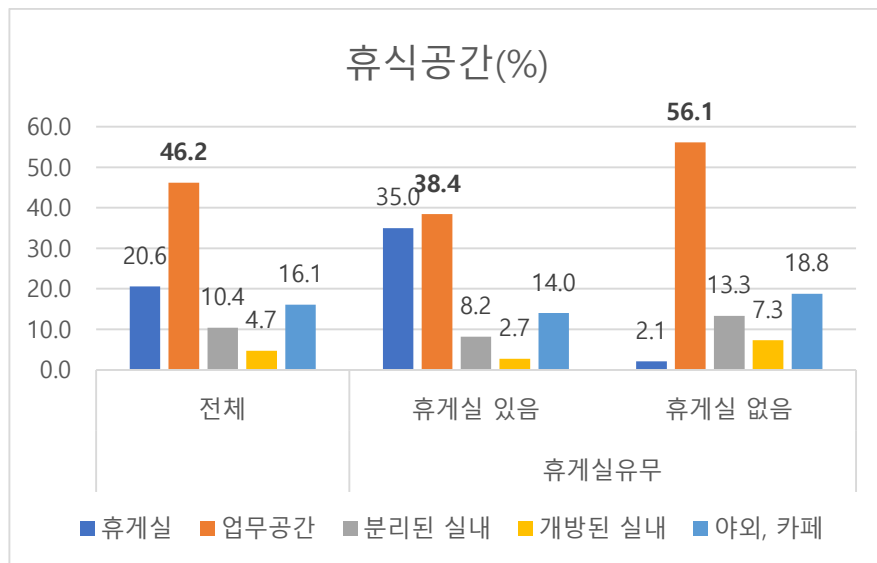


그림 6. 휴게실 유무와 휴식공간 (전체)

휴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중은 <표 18>과 같음.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가장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는 업무공간임. ‘업무공간에서 업무 중 틈틈이’ 된다는 비중이 46.2%로,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것.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쳤고, 16.1%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업무공간에서 쉬거나 야외에서 쉬는 비중이 높은 건 휴게실이 없기 때문임. <그림 6>을 보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업무공간에서 쉬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휴게실에서 쉬는 비중이 각각 38.4%, 35.0%로 비슷한 반면,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56.1%가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고, 18.8%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휴게실	823	20.6	25.9	16.6	17.9	22.5	19.3	19.9	26.5
업무공간	1,847	46.2	40.2	50.4	50.0	44.7	44.9	44.6	41.5
분리된 실내	417	10.4	10.7	10.1	10.9	9.0	9.5	11.5	10.9
개방된 실내	188	4.7	5.2	4.4	5.1	4.9	4.2	4.8	3.6
야외, 카페	643	16.1	15.8	16.6	14.2	16.9	19.9	16.6	15.4
차량	82	2.0	2.3	1.9	1.9	1.9	2.2	2.5	2.1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9. 업종별, 규모별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휴게실	823	20.6	36.1	14.2	11.2	15.1	16.3	20.5	25.6	37.2	37.8
업무공간	1,847	46.2	29.0	53.2	55.2	53.9	44.3	51.3	31.4	28.5	29.3
분리된 실내	417	10.4	11.1	10.1	9.2	10.0	12.7	12.0	6.6	12.3	9.6
개방된 실내	188	4.7	5.7	4.3	3.9	4.3	5.5	3.4	8.3	5.3	5.8
야외, 카페	643	16.1	14.6	16.7	19.0	15.3	19.9	8.6	25.6	13.3	13.1
차량	82	2.0	3.4	1.5	1.3	1.4	1.3	4.3	2.5	3.3	4.2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0. 직종별 휴식공간 (전체)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은만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공간에서 된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20인 미만 사업장의 50.0%는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음. 마찬가지로 휴게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무·전문직도 업무공간에서 그냥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5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대로 휴게시설이 있다는 비중이 높은 생산직(특히 반숙련직과 단순직)은, 업무공간보다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음. 반숙련직은 37.2%가, 단순직은 37.8%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

	전체	비중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휴게실	823	20.6	26.2	15.8	18.8	19.5	19.8	26.9	32.7
업무공간	1,847	46.2	35.5	55.3	50.1	47.4	44.2	41.3	35.6
분리된 실내	417	10.4	8.8	11.8	10.8	11.1	9.6	8.8	13.5
개방된 실내	188	4.7	4.7	4.7	3.9	4.7	5.3	5.2	3.8
야외, 카페	643	16.1	21.9	11.1	14.8	16.2	17.7	15.3	11.5
차량	82	2.0	2.8	1.4	1.7	1.1	3.3	2.5	2.9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성별, 세대별 휴식공간 (전체)

성별·세대별 휴식공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업무공간에서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35.5%)에 비해 여성(55.3%)이 더 높다. 남성의 경우 휴게실(26.2%)이나 야외 공간(21.9%)에서 휴식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중이 여성보다 높음.

세대별로 보면, 성별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20대와 30대는 업무공간(자기 자리)에서 쉰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각각 50.1%, 47.4%임. 50대와 60대 역시 업무공간에서 쉰다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20대와 30대에 비해서는 휴게실에서 쉰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20대 30대가 휴게실에서 쉰다는 비중이 각각 18.8%, 19.5%인 반면, 50대와 60대는 25.9%, 3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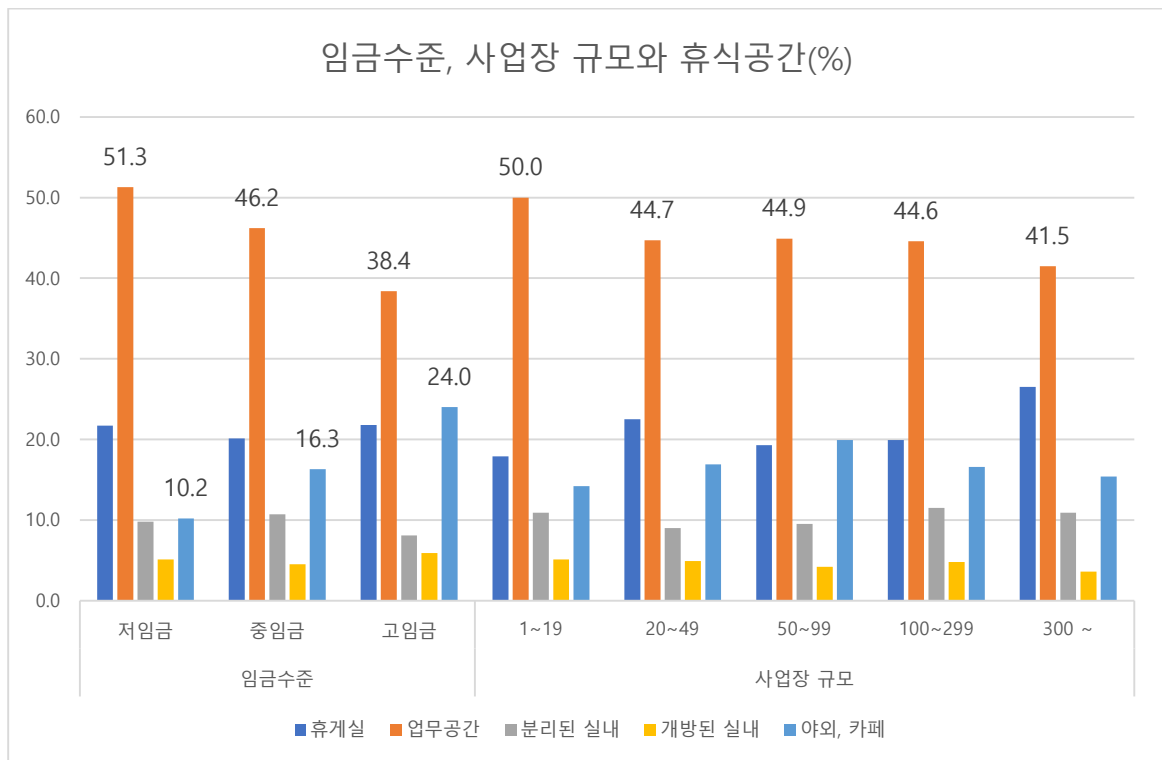


그림 7. 임금수준, 사업장 규모와 휴식공간 (%)

	전체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휴게실	823	20.6	21.7	20.1	21.8	17.8	19.7	18.4	25.3	22.3
업무공간	1,847	46.2	51.3	46.2	38.4	56.8	48.9	45.8	38.3	35.5
분리된 실내	417	10.4	9.8	10.7	8.1	8.7	9.7	12.0	11.2	12.3
개방된 실내	188	4.7	5.1	4.5	5.9	4.9	3.8	6.8	4.6	8.0
야외, 카페	643	16.1	10.2	16.3	24.0	9.5	16.3	15.6	17.2	19.1
차량	82	2.0	1.8	2.1	1.8	2.3	1.7	1.3	3.3	2.8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2. 임금수준, 노동시간과 휴식공간 (전체)

한편 임금수준에 따른 휴식공간 역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저임금 노동자나 중임금, 고임금 노동자 모두 휴게실에서 쉰다는 응답률은 비슷하게 나타남. 각각 21.7%, 20.1%, 21.8%임. 저임금 노동자의 ‘휴게실 없음’ 비중이 높지만 ‘휴게실에서 쉰다’는 응답률이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나온 건, 저임금 노동자들의 휴게실 이용빈도가 높아서 임.

반대로 고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야외,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 저임금 노동자들은 10.2%만이 야외, 카페에서 쉰다고 응답한 데 반해, 고임금 노동자들은 24.0%가 야외,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 휴게실은 물론 다른 휴게공간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업무공간(자기자리)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직접적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다른 대안 공간이 없고, 그에 따라 자기 자리에서 쉬는 것이 반복되면, 이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6.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실 요건

	접근성	적정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0	27.0	59.8	88.3	4.2	13.1	28.1	15.6
경기	57.7	23.2	63.9	85.8	5.8	9.3	31.9	15.0
경남	56.5	28.8	65.8	62.0	4.9	24.5	25.5	16.8
경북	55.2	24.8	74.3	93.3	4.8	10.5	23.8	7.6
광전	71.2	28.1	58.3	65.5	10.1	28.1	16.5	16.5
대구	62.8	26.3	51.5	72.6	5.1	21.5	39.4	12.8
대전	63.4	23.7	55.9	97.8	5.4	11.8	21.5	8.6
부산	53.5	22.1	60.2	80.1	6.2	18.1	26.5	21.2
서울	50.1	27.1	60.2	103.2	2.7	8.0	26.7	15.9
인천	61.7	36.6	58.4	66.7	5.3	16.2	29.7	14.5
전북	61.2	30.4	53.7	70.1	3.3	21.0	33.6	14.5
충남	69.8	22.5	57.4	72.9	0.8	20.9	29.5	18.6

	접근성	적정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충북	60.9	27.6	54.0	92.0	6.9	11.5	20.7	23.0

표 23. 지역별 휴게실 여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분위기)임. 휴게실 요건 중 1순위 선택을 200점, 2순위 선택을 100점 가산해 평균을 내면, 분위기가 88.3점으로 가장 높음.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손꼽힌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휴식시간)으로 59.8점이고, 세번째는 ‘접근성, 가까운 거리’(접근성)로 56.0점임. 두번째나 세번째는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어느 지역이나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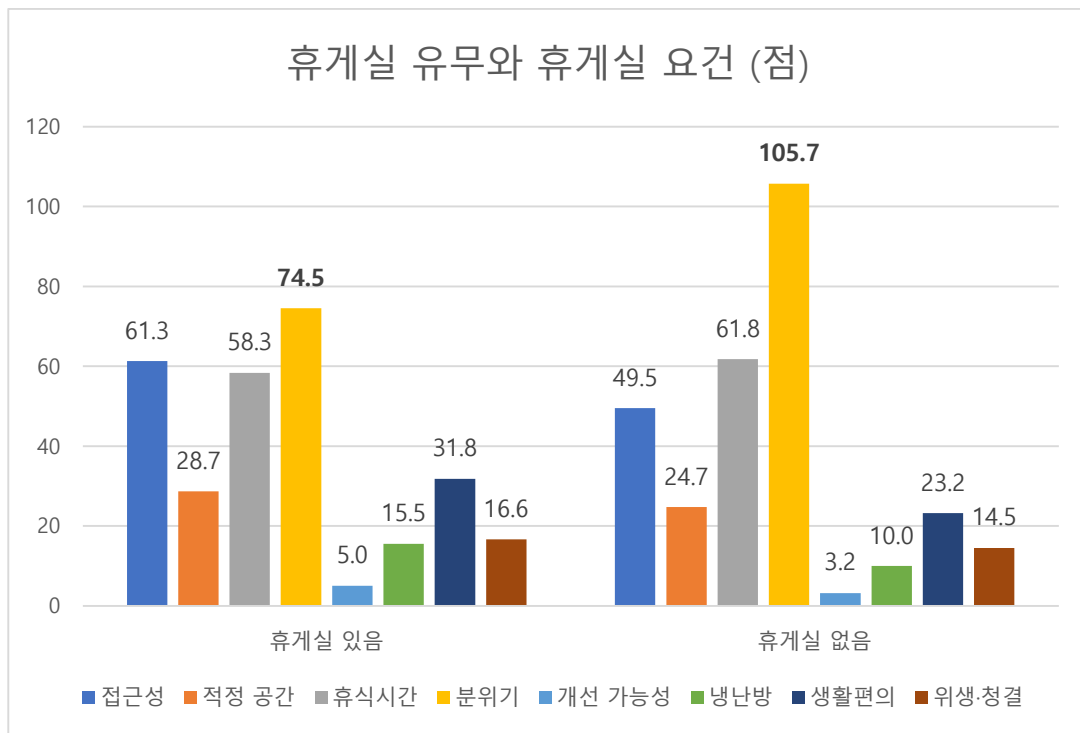


그림 8.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요건 (점)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휴게실 요건이 크게 달라짐.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역시 분위기를 중요하게 꼽지만(74.5점), ‘휴게실이 없다’는 노동자의 점수(105.7점)만큼 높지는 않음. 대신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61.3점), 냉장고, 정수기, 안마기 등 생활편의시설이 ‘휴게실이 없다’는 노동자(23.2점)에 비하면 중요하게 부각됨(31.8점).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요인이 줄어드는 건,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때문.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1	26.9	59.9	88.2	4.2	13.1	28.1	15.7
남성	68.6	31.1	55.9	72.2	5.9	13.1	29.1	14.9
여성	45.6	23.4	63.2	101.8	2.8	13.1	27.2	16.3
20 대	50.7	22.2	62.7	103.9	2.3	8.4	26.8	17.8
30 대	55.3	29.6	58.8	91.5	5.5	12.5	25.5	15.6
40 대	62.5	26.9	59.4	81.5	4.4	14.4	27.7	12.6
50 대	55.6	25.3	57.9	70.8	3.6	17.5	37.6	20.5
60 대	50.0	36.0	64.0	51.0	4.0	29.0	40.0	10.0

표 24. 성별, 세대별 휴게실 요건 (전체)

앞서 살펴봤듯 남녀 사이에는 휴게실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는데, 휴게실 요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에 높은 의미(101.8 점)를 부여한 반면, 남성은 분위기가 여성에 비해 낮고(72.2점), 대신 접근성 문제도(68.6점) 중요하게 보고 있음.

세대별로도 차이가 확인됨. 20~30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40~50대는 ‘접근성, 가까운 거리’(접근성), ‘충분한 휴식시간’(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도 중요하게 보고 있음.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1	26.9	59.9	88.2	4.2	13.1	28.1	15.7
생산직	69.4	30.9	56.6	60.8	5.3	21.1	30.4	13.8
사무판매직	50.7	25.3	61.2	99.3	3.8	9.8	27.1	16.4
전문직	45.5	25.2	58.7	105.3	3.1	7.4	30.7	19.0
사무직	49.1	25.0	60.2	100.7	3.3	10.6	27.4	16.6
판매직	66.1	28.9	71.1	81.6	8.2	9.2	18.1	11.2
서비스직	70.9	21.4	67.5	82.1	2.6	19.7	19.7	7.7
숙련직	67.5	18.3	56.7	60.8	5.8	18.3	45.8	16.7
반숙련직	66.8	34.3	56.3	61.5	5.6	21.8	27.4	14.8
단순직	78.0	26.3	57.6	58.8	4.3	20.4	32.2	9.8

표 25. 직종별 휴게실 요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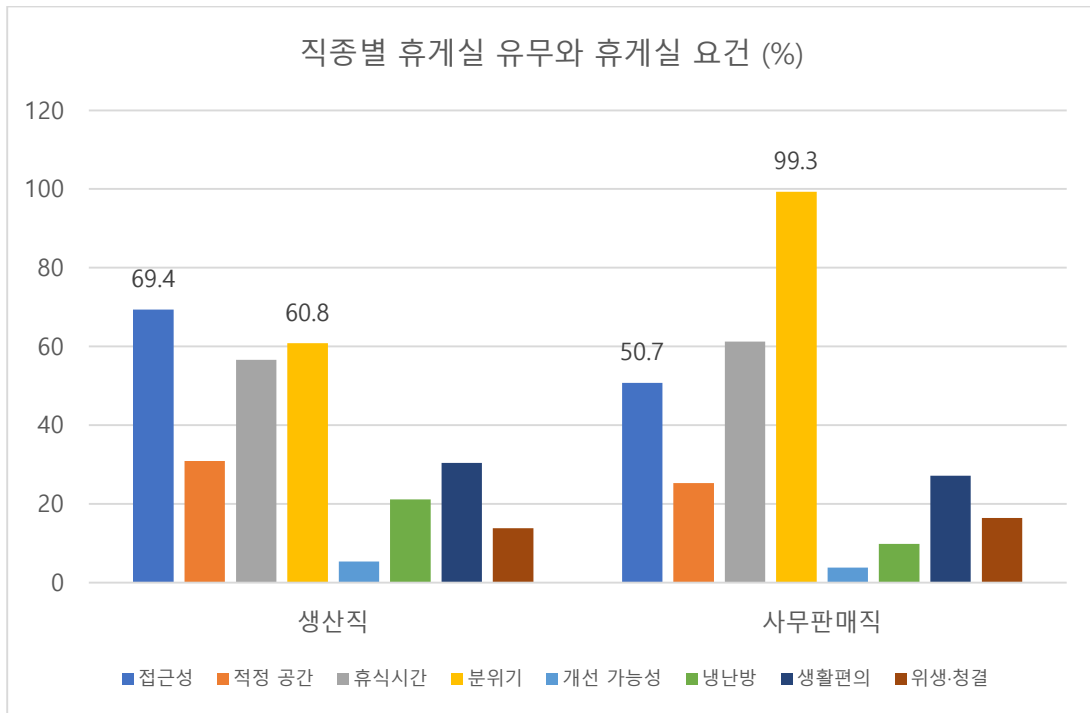


그림 9. 직종별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요건 (%)

휴게실 요건에 대한 이해는 직종별 차이가 더 뚜렷함. 사무판매직(비생산직)이은 분위기에 많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99.3점), 접근성(50.7점)보다는 휴식시간(61.2점)을 더 중요하게 본 반면, 생산직은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69.4점), 그 다음이 분위기(60.8점)와 휴식시간(56.6점) 임.

“이제 휴식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직종도 있을 텐데 없는 회사도 많아요. 자기가 짬을 내서 쉬어야 하는데, 같은 5분을 쉬어도 ‘재네 아직 도 쉬고 있네’ 눈총 받을 거 같으면 못 쉬어요.” (4442, 정보통신, 사무직)

“휴게실이라는 게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서로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해요. 좋은 시설보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2039, 정보통신, 전문직)

“작업장에서 일하는 공간하고 휴게공간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소용없어요. 쉬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이렇게 쉬잖아요. 멀면 이동하는 사이 휴게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1583, 제조업, 생산직)

7. “공동 휴게실 이용하겠다”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이용하겠다	1,669	41.5	41.5	42.7	42.5	42.7	35.0	50.0	39.7	41.1	41.0	44.0	43.2	53.4
가까우면 이용하겠다	1,788	44.5	45.2	37.5	50.0	37.8	38.6	35.4	41.9	47.1	48.2	43.1	41.7	37.5
이용 안 한다	564	14.0	13.3	19.8	7.5	19.6	26.4	14.6	18.3	11.8	10.8	12.8	15.2	9.1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6. 공동휴게실 이용 의향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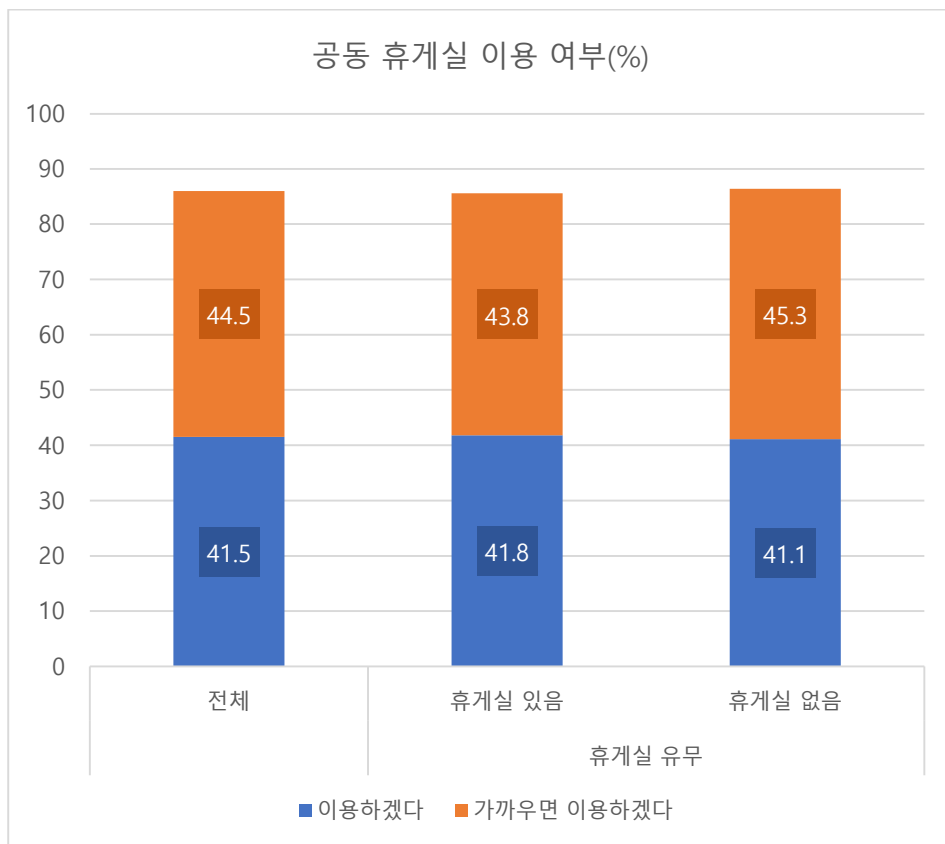


그림 10. 공동 휴게실 이용 여부 (%)

공동 휴게실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86.0%나 됨. 가까우면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44.5%이고,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41.5%임.

주목할 것은 회사에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85.6%)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86.4%)나 모두 공동 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높다는 것.

“별도의 휴게실이 없어요 탈의실이 있지만 캐비닛만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고요. ... 공장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요. 좀 나가야 해요. 커피 한잔 먹으려 해도 점심시간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공동 휴게실하고 편의점, 커피숍이 같이 있고, 공동 의자 벤치도 있으면 쉬고 오고 좋죠. 밥 먹고 쉴 때도 더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죠.” (3859, 제조업, 생산직)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있는데도 공동 휴게실을 이용하겠어요?) 신입 때를 생각해 보면 공동 휴게실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야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회사 휴게실 쓰는데 눈치 안 보는데, 신입이라면 거리만 가까우면 공동 휴게실 사용할 거거든요. 눈치도 덜 보고 거기서 잠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4443, 정보통신, 사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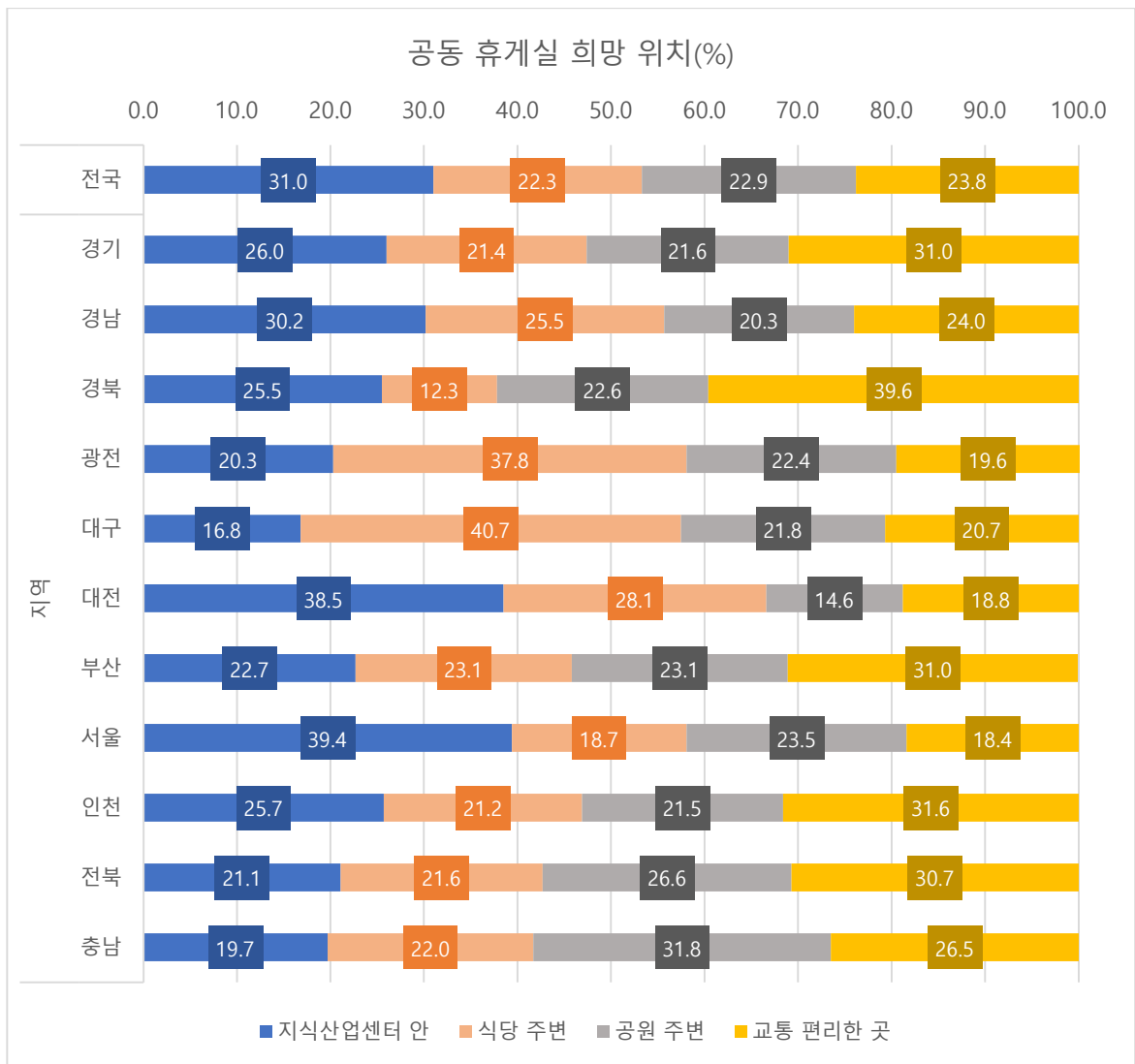


그림 11. 공동 휴게실 희망 위치 (%)

공동 휴게실 위치에 대해서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볼 만큼 다양하게 나타남.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1.0%로 우세하긴 하지만², ‘식당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공원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모두 22% 이상 지지를 얻고 있음.

“지식산업센터, 층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건물이 높아요. 바람 한번 쐬려고 하면 1층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엘리베이터 전쟁을 해야 해요.” (2039, 정보통신, 전문직)

“공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농공단지 근처에 있는데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공원도 생기고, 거기에 공동 휴게실도 생기고 하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3795, 제조업, 생산직)

“자주 가는 식당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밥 빨리 먹고 나와서 최대한 오래 쉬고 싶어요.” (4117, 제조업, 사무직)

“교통이 편리한 곳, 지하철역 같은 곳에 있으면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기면 지금 저희 회사 시설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또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4396, 도소매업, 사무직)

8. 결론 및 제언

2022년 전국 12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휴게실 및 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다음이 확인됨.

첫째, 4,036명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40.0%가 휴게실이 없음.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 중 일부는 야외, 카페 등으로 나가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56.1%) 업무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짬을 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 이용률은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게서 더 높음. 저임금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노동에 지친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며, 커피값을 아끼며 담소를

² 지식산업센터 점수가 높은 건 서울 표본이 많기 때문임. 서울 응답자들의 공동 휴게실 희망 위치는 지식산업센터로 39.4%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 휴게실이 없거나 부족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외부공간,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공간에서 대기할 뿐임.

아이러니하게도 휴게실 의무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정작 휴게실 활용도도 높고, 누구보다 휴게실이 절실한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음.

셋째, 휴게실이 있다 해도 좁은 공간, 부족한 개수, 파견 노동자 차별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원 대비 적정 공간인지 대해서도 44.9% 만이 좁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이고, 규모 대비 적정 개수 인지에 대해서도 50.9%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함. 좁고, 부족한 것. 응답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심층 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부족한 휴게실의 실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 휴게실 사용에 대한 파견노동자 차별 문제도 심층 면접조사 과정에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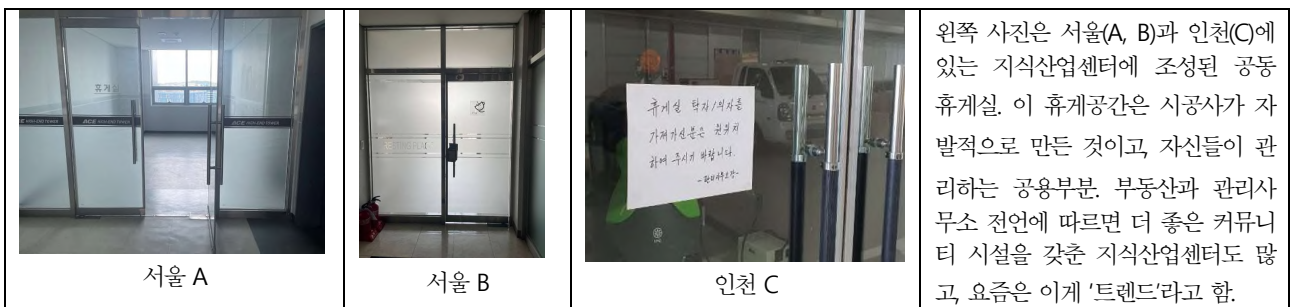
넷째, 휴게실 요건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될 수 있는 분위기’임. ‘될 수 있는 분위기’란 관리자나 상사, 선임(혹은 후임)의 눈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 요건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장 내 분위기일 수도 있음.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보다는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서 분위기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그 자체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함. 휴게실 자체가 ‘눈치 보지 않고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다섯째, 공동 휴게실은 휴게실 부족 문제, 좁고 열악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공동 휴게실 설치 시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86.0%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공동 휴게실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 중요한 것은 사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나 모두 공동 휴게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공동 휴게실은 공간이 좁은 20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휴게실 문제 뿐만 아니라 사내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³

여섯째, 휴게실 설치가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실질화 되려면, 휴게실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와 공동 관리가 중요함. 특히 공동 휴게실의 경우 복수의 사용자와 복수의 노

³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빠른 분양과 원활한 임대를 위한 용도로, 공동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방지될 수 있음.

“생산직 쪽에는 휴게실(겸 탈의실)이 있지만, 사무직 쪽은 휴게실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그런 휴게 공간이 있어요. 쉬려고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의자들이 다 부서져 있어서 그만 됐어요.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627, 제조업 전문직)

또 공동 휴게실은 산업단지 내 다른 복지사업과 연계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매점, 작업복 세탁소, 심리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등이 바로 그것.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면 휴게실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복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음.

“여기 산업단지에서, 항상 좀 아쉬웠던 게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 가려면 왕복 3~40분이 걸려요. 공동 휴게실이라면, 매점이나 편의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점심 식사하고 편의점 들리는 분들도 은근 있잖아요.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에, 매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쉬는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45, 제조업 전문직)

휴게실 의무화와 함께 진행될 정부의 휴게실 지원 사업은, 작은 사업장을 위한 ‘공동 휴게실’을 곳곳에 만들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지식산업센터처럼 대규모 집적 시설에는 층마다 공동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 식당 주변, 공원 주변 등 여러 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용자 단체(예컨대 입주 기업체 대표자협의회)와 지역 노동조합이 공동 휴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청 대기업과 지역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휴게실은 원청·대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작은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운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보론> 산업단지 노동자의 복지 환경과 요구

1.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교부	3,258	81.0	80.1	84.4	75.5	76.2	78.2	78.1	78.6	82.8	80.8	83.5	78.0	80.7
보기만 함	470	11.7	12.7	6.8	16.0	12.6	12.1	14.6	13.1	11.4	11.4	7.8	15.2	11.4
본 적 없음	293	7.3	7.2	8.8	8.5	11.2	9.6	7.3	8.3	5.8	7.8	8.7	6.8	8.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지역별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교부	3,258	81.0	83.8	79.1	73.2	85.5	85.6	84.6	86.2
보기만 함	470	11.7	10.1	12.6	13.4	10.0	10.6	11.7	10.8
본 적 없음	293	7.3	6.1	8.3	13.4	4.6	3.8	3.7	3.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업종별, 규모별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 (전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산업단지 노동자 중 19.0%는 여전히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적도 없다는 비중이 7.3%임.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6.8%가 교부 받지 못했고, 13.4%는 본 적도 없음.

2. 휴게시간의 결정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관리자 허락	183	4.5	3.5	5.5	5.2	3.7	5.6	4.6	2.8
업무 없을 때	1,453	36.1	26.4	43.8	39.3	34.2	35.5	34.4	33.5
자유롭게	845	21.0	16.8	23.8	23.3	20.6	19.3	18.4	20.2
회사규정	1,540	38.3	53.4	26.9	32.2	41.4	39.6	42.6	43.5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업종별, 규모별 휴게시간의 결정 (전체)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관리자 허락	183	4.5	4.0	4.8	3.8	4.7	7.1	7.6	5.0	3.2	6.1
업무 없을 때	1,453	36.1	17.6	43.7	43.7	45.0	40.5	35.6	23.1	16.7	17.6
자유롭게	845	21.0	12.7	24.4	29.1	22.8	20.7	19.5	18.2	11.5	13.7
회사규정	1,540	38.3	65.8	27.1	23.4	27.5	31.7	37.3	53.7	68.7	62.6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직종별 휴게시간의 결정 (전체)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질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회사규정)는 비중이 38.3%인 것으로 나타남. ‘업무가 없을 때 알아서’(업무 없을 때)는 36.1%, ‘원할 때 자유롭게’(자유롭게)는 21.0%, ‘업무가 없을 때 관리자 허락 하에’(관리자 허락)는 4.5%임.

<표 3>을 보면 회사규정에 따라 쉰다는 비중이 업종별로도 차이가 나지만(제조업 53.4%, 비제조업 26.9%), 직종별로 차이가 더 뚜렷함. 생산직의 65.8%는 회사 규정에 따라 쉬지만, 사무판매직(비생산직)은 27.1%에 불과하고, 업무 없을 때 비중은 43.7%로, 업무가 없을 때 알아서 쉰다는 비중이 더 높음.

3. 복지제도 실태와 희망하는 복지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71.2	27.9	54.0	18.0	37.3	27.6	16.4	60.5	12.2	45.8
경기	68.6	32.5	54.4	28.4	50.4	28.8	22.7	64.0	16.6	48.9
경남	71.9	35.4	62.0	35.4	62.0	25.0	23.4	59.9	26.0	56.8
경북	67.9	44.3	57.5	40.6	62.3	34.0	26.4	62.3	19.8	53.8
광전	74.1	37.1	60.8	30.8	46.2	21.0	14.7	61.5	16.1	54.5
대구	79.6	26.1	61.8	23.6	45.4	13.6	11.4	56.1	10.7	58.6
대전	80.2	26.0	50.0	15.6	43.8	33.3	20.8	58.3	14.6	43.8
부산	79.0	38.4	56.8	31.0	41.5	27.9	20.1	65.9	12.7	48.0
서울	68.1	21.8	47.8	6.4	21.9	29.7	12.6	57.4	8.3	40.9
인천	70.7	23.5	53.7	17.3	45.9	22.5	15.0	62.9	16.9	39.4
전북	76.1	34.9	65.6	23.4	43.6	29.8	17.4	77.1	10.6	45.9
충남	72.0	34.1	65.9	37.1	56.1	30.3	21.2	59.8	12.1	48.5
충북	78.4	42.0	68.2	19.3	59.1	33.0	30.7	56.8	11.4	54.5

표 5. 지역별 복지 실태 (전체)

산업단지 노동자의 71.2%가 식비를 지원받고 있고, 60.5%는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름유급휴가를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5.8%임.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2	53.2	20.1	9.6	15.2	27.0	20.0	19.5	4.7	53.5
경기	61.1	53.2	19.2	11.3	13.3	29.2	23.5	21.0	7.0	51.4
경남	47.2	55.1	22.7	5.7	8.5	29.0	33.0	24.4	5.1	51.7
경북	68.3	62.4	18.8	5.9	9.9	21.8	40.6	12.9	7.9	41.6
광전	58.0	52.9	26.8	7.2	23.9	23.9	15.9	27.5	10.9	44.9
대구	38.4	57.2	26.6	12.2	12.2	24.0	26.6	33.6	8.1	49.1
대전	57.8	52.2	21.1	14.4	16.7	23.3	31.1	18.9	1.1	51.1
부산	60.8	51.8	14.4	9.5	12.6	32.9	29.7	17.6	4.5	52.3
서울	79.5	49.1	17.7	7.3	17.1	27.2	15.0	18.4	3.0	54.6
인천	59.8	61.4	27.8	8.2	11.8	27.1	12.7	12.1	4.2	59.8
전북	41.7	59.7	21.8	15.5	17.0	25.2	18.9	10.2	6.3	62.6
충남	59.4	60.9	15.6	16.4	12.5	21.9	19.5	19.5	1.6	57.8
충북	34.5	58.6	26.4	27.6	21.8	28.7	26.4	26.4	6.9	41.4

표 6. 지역별 복지 희망 (전체)

71.2%가 식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희망하는 복지 순위(1순위 200점, 2순위 100점)를 살펴보면, 식비 지원 요구가 65.2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남. 두번째로 높은 건 여름유급휴가로 53.5점임.

식비 지원 요구가 높은 것은, 식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10만원이 세액공제를 위한 금액이지 실질적인 식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다, 점심 식대 자체가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

“지하 구내식당 비용도 은근히 비싸요. 5,500원인데 이것도 적지 않죠. 이거라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39, 전문직)

“수천만원 연봉을 줘도, 식비를 준다, 안 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식비를 준다는 거는 연봉을 올려줬다기 보다는 복지가 추가되었다는 인식을 줘요. 사원 모집 공고를 보면 사내 복지로서 사내 식당/식비 지원, 이렇게 명문화하거든요. 식비는 복지여야 해요. 밥은 먹으면서 일해야 하니까요.” (4443, 사무직)

“여기가 첫 회사예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여름 휴가가 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만 여름 유급 휴가가 없는 거예요.” (2627, 전문직)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1	53.1	20.1	9.5	15.3	27.2	19.9	19.6	4.7	53.7
남성	54.6	54.8	19.8	12.2	14.6	30.1	23.9	18.9	7.0	49.8
여성	73.8	51.7	20.4	7.3	15.8	24.7	16.6	20.1	2.7	56.9
20대	76.6	56.9	16.7	11.7	14.1	24.5	7.2	13.1	3.4	67.9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30대	71.6	50.7	20.5	8.8	16.5	25.7	27.3	16.5	3.7	50.5
40대	55.4	50.7	18.6	9.4	15.0	32.1	26.1	22.1	6.2	46.6
50대	48.8	58.2	26.6	8.9	14.0	27.6	8.9	32.5	5.6	52.1
60대	39.8	59.2	32.7	5.1	15.3	17.3	6.1	39.8	10.2	56.1

표 7. 성별, 세대별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4.5	52.6	20.1	9.6	15.2	27.4	20.0	19.7	4.7	54.1
제조업	46.1	55.5	21.7	12.8	13.3	31.5	25.1	20.4	6.6	54.0
비제조업	79.1	50.4	18.8	7.0	16.8	24.1	16.0	19.2	3.1	54.1
1~19	72.9	60.4	19.0	5.8	12.4	24.5	17.2	24.1	2.4	49.9
20~49	65.7	48.5	20.6	10.8	16.0	27.1	20.4	19.3	4.2	55.9
50~99	63.6	48.6	20.6	10.7	16.5	26.3	21.6	16.7	5.4	56.3
100~299	60.6	49.4	22.8	12.7	17.3	31.6	19.4	13.1	7.4	54.2
300 ~	49.7	49.9	18.6	12.0	18.2	30.4	25.1	18.2	7.5	57.4

표 8. 업종별, 규모별 복지 희망 (전체)

<표 7>과 <표 8>을 보면 식비 지원에 대한 복지 요구는 남성(54.6점)보다는 여성(73.8점)에게서, 40대와 50대보다는 20대(76.6점)와 30대(71.6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또 제조업(46.1점)보다는 비제조업(79.1점)에서, 대기업보다는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78.9점)에서 더 높음.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1	53.1	20.1	9.5	15.3	27.2	19.9	19.6	4.7	53.7
정규직	61.2	53.3	19.8	9.6	16.0	29.0	21.9	19.1	5.0	52.9
비정규직	79.2	52.4	21.2	9.2	12.5	20.2	12.8	21.2	3.3	56.3
1년 미만	77.5	56.6	15.0	7.4	12.9	21.3	11.7	18.2	2.4	63.1
2년 미만	73.0	50.4	20.1	11.0	17.1	24.6	14.8	18.8	2.0	57.9
5년 미만	63.4	56.2	20.4	10.5	16.3	30.8	20.3	16.8	5.2	51.4
10년 미만	58.8	49.3	21.6	8.7	16.1	30.0	28.7	19.6	5.1	50.1
10년 이상	49.8	47.7	24.6	9.7	14.4	29.7	27.8	27.8	9.4	43.5

표 9. 업종별, 규모별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3	53.2	20.0	9.5	15.3	26.9	19.9	19.6	4.5	53.8
저임금	85.6	62.5	17.1	9.4	10.6	16.5	13.3	16.9	2.1	55.4
중임금	64.2	52.3	20.6	9.7	16.1	27.6	20.2	19.1	4.5	53.8
고임금	40.8	47.7	17.7	7.3	14.2	37.7	28.1	30.4	9.6	50.4
11~35	90.4	60.9	10.7	6.9	9.2	19.5	13.4	29.5	0.8	46.0
36~40	69.5	52.3	20.7	9.1	15.4	25.4	18.1	18.2	4.2	55.5
41~47	63.5	51.3	20.3	8.5	16.4	31.0	20.5	19.0	1.9	55.8
48~52	44.8	54.9	20.1	11.6	16.0	30.9	27.4	21.6	9.7	50.3
53~	61.4	50.6	24.5	12.4	15.8	30.7	19.9	15.8	5.0	51.5

표 10. 임금, 노동시간과 복지 희망 (전체)

<표 9>와 <표 10>을 보면, 정규직(61.2점)보다는 비정규직(79.2점)에게서, 장기 근속(10년 이상 49.8 점)보다는 단기 근속(1년 미만 77.5점) 노동자에게서, 고임금(40.8점)보다는 저임금(85.6점)노동자에게서 식비 요구가 더 높음. 중임금 노동자도 64.2점으로 가장 높은 복지 요구. 한편 근속이 길어지면, 임금이 높으면 그제야 교육, 육아,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식비부터 개선해달라는 것.

<참고자료 1>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개요 및 응답자의 특성

1. 조사목적

- 2022년 8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휴게실 유무 및 휴게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실태 및 휴식 형태를 분석,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요구안 마련
- 휴게실 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 휴가 등 산업단지 노동자의 복지 수준과 복지 요구 확인

2. 개요

○ 조사 방법 : 편의추출조사

-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지역 산업단지 일대에서 거리 설문 조사 및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기간 : 3.23 ~ 4.30

○ 조사 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생년
- 노동시장 특성 : 근무지(지역), 업종(중분류), 직종(대분류), 사업장 규모, 근속, 고용형태, 노조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 복지실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유급휴가 등
- 휴게실 실태 : 휴게실 현황, 상태, 이용, 휴식공간, 휴게실 요건
- 복지 및 휴게실 희망

○ 응답자 : 4,443명

- 온라인 응답자 : 3,644명
- 거리 응답자 : 377명
- 분석 대상 : 4,021명

3. 응답자 특성

4,443명의 응답자 중 중복 응답자, 자영업자, 그리고 결측 값이 많은 응답자를 제외한 4,0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세대별), 노동시장 특성(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속, 고용형태), 노동조건 특성(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지역	경기	458	11.4	성별	남성	1,847	45.9
	경남	192	4.8		여성	2,174	54.1
	경북	106	2.6	세대	20 대	895	22.3
	광전	143	3.6		30 대	1,486	37.0
	대구	280	7.0		40 대	1,085	27.0
	대전	96	2.4		50 대	449	11.2
	부산	229	5.7		60 대	106	2.6
	서울	1,751	43.5	노조	미가입	3,417	85.0
	인천	307	7.6		민주노총	518	12.9
	전북	218	5.4		한국노총	86	2.1
	제주	21	0.5				
	충남	132	3.3				
	충북	88	2.2				
	계	4,021	100.0				

표 1.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인구학적 특성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업종	제조	1,730	44.7	제조업	식품제조	86	5	비제조업	건설	93	4.3
	건설	93	2.4		섬유의복	124	7.2		정화재생	26	1.2
	도소매	390	10.1		목재종이	44	2.5		금융	64	3
	운수	93	2.4		석유화학	224	12.9		부동산	34	1.6
	음식숙박	72	1.9		비금속	15	0.9		사업지원	173	8.1
	정보통신	457	11.8		철강	57	3.3		전문기술	302	14.1
	금융	98	2.5		기계	247	14.3		출판방송	60	2.8
	과학기술	302	7.8		전기전자	430	24.9		IT 정보	380	17.7
	사업지원	183	4.7		운송장비	357	20.6		통신	17	0.8
	교육	114	2.9		기타제조	146	8.4		도소매	391	18.2
	보건복지	172	4.4						운수	93	4.3
	개인	87	2.2				음식숙박		72	3.4	
	기타	81	2.1				가사		29	1.4	
							보건복지		172	8	
						교육공공	181	8.4			
						문화	19	0.9			
						기타	36	1.7			

표 2.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업종 특성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규모	1~19	1,451	36.1	직종	관리직	13	0.3	근속	1년 미만	947	23.7
	20~49	833	20.7		전문직	903	22.5		2년 미만	620	15.5
	50~99	550	13.7		사무직	1,510	37.5		5년 미만	1,100	27.5
	100~299	648	16.1		판매직	309	7.7		10년 미만	684	17.1
	300~	535	13.3		서비스직	118	2.9		10년 이상	647	16.2
				고용	숙련직	121	3	임금	저임금	493	12.4
			반숙련직		785	19.5	중임금		3,218	80.8	
			단순직		262	6.5	고임금		273	6.8	
				고용	정규직	3,164	78.7	노동시간	11~35	267	6.6
			비정규직		857	21.3	36~40		2,163	53.9	
						41~47	609		15.2		
						48~52	727		18.1		
						53~	251		6.2		

표 3.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 특성

※ 저임금 : 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 중위임금 3/2 이상. 202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중위임금 297만원

	나이	근속	임금	노동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
전체	37.9	5.0	273.2	42.6	57.7	20.7	25.1
경기	38.3	6.2	285.8	42.6	55.5	20.6	24.9
경남	38.1	5.2	269.5	44.7	58.8	23.7	23.3
경북	37.6	6.4	244.3	39.4	45.0	21.0	24.9
광전	41.2	6.6	237.3	42.8	55.7	19.6	21.4
대구	41.3	6.2	254.2	45.7	53.5	21.9	27.4
대전	36.8	4.7	266.5	43.9	56.5	22.8	27.4
부산	39.7	5.7	253.8	42.9	55.6	24.9	22.5
서울	36.2	4.4	286.2	41.7	60.6	17.6	24.9
인천	40.7	5.0	260.3	43.6	54.2	27.4	26.6
전북	39.0	4.6	256.7	43.6	58.0	23.5	23.6
충남	37.3	4.4	268.0	43.2	60.2	24.8	28.6
충북	36.7	4.7	260.8	40.4	56.6	24.5	30.5

표 4.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노동환경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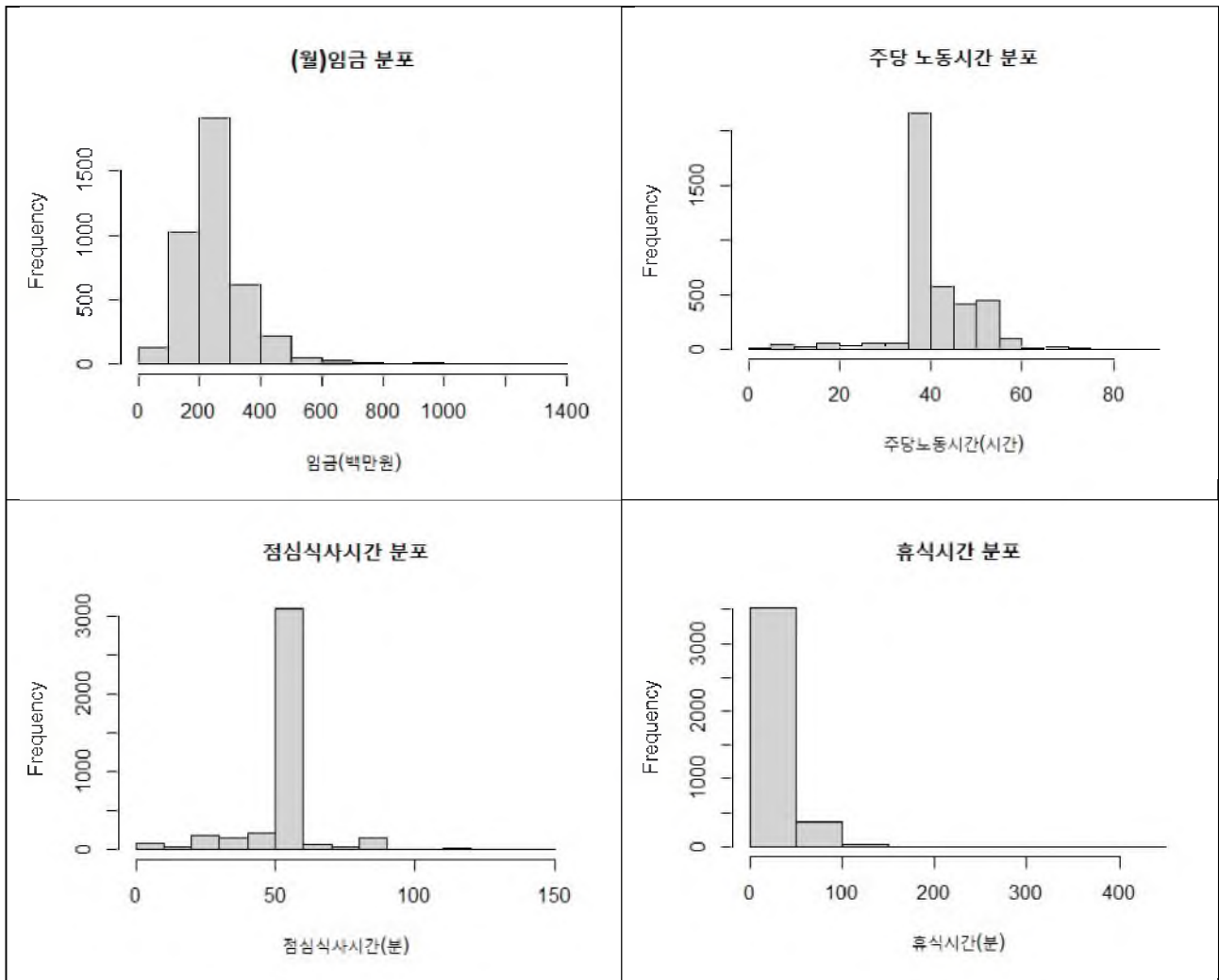


그림 1. 2022 휴게실 복지 임금·노동시간 분포 (전체)

<참고자료 2>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 설문 응답자 중 심층면접에 동의해 준 이들 중, 지역별, 성별, 세대별, 규모별, 업종 및 직종별, 휴게실 유무 등을 고려해 18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진행하고, 7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3명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함.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

- 4명은 대면조사, 24명은 온라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지역별, 성별, 업종, 직종 특징은 아래와 같음.

	지역	성별	세대	규모	업종	직종	휴게실	노조	인터뷰
9	서울	여성	30 대	30~99	제조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58	서울	여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345	부산	여성	20 대	30~99	제조업	전문직	없음		온라인
369	전북	여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사무직	1 개	한국노총	온라인
812	충북	여성	20 대	1~29	제조업	전문직	1 개		온라인
1025	인천	남성	20 대	1~29	사업서비스업	시설관리	없음	민주노총	온라인
1351	경기	여성	20 대	300 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1583	경북	남성	40 대	100~299	제조업	반숙련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2039	서울	여성	30 대	30~99	정보통신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2249	경남	여성	20 대	100~299	보건복지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2627	광전	여성	20 대	1~29	제조업	전문직	없음		온라인
3286	서울	남성	40 대	30~99	정보통신업	전문직	2 개 이상		온라인
3613	부산	남성	3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온라인
3684	경기	남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한국노총	온라인
3795	전북	여성	4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3817	충남	남성	2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온라인
3818	경남	남성	3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2 개 이상		온라인
3859	인천	여성	40 대	30~99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4093	서울	남성	20 대	300 이상	전문기술업	사무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094	서울	남성	40 대	300 이상	전문기술업	사무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095	제주	여성	40 대	300 이상	정보통신업	사무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4115	서울	여성	50 대	30~99	제조업	생산직	1 개	민주노총	대면
4117	대구	여성	30 대	100~299	제조업	사무직	없음	민주노총	온라인
4396	서울	여성	30 대	100~299	도소매업	전문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4397	전북	남성	30 대	30~9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442	서울	남성	30 대	1~29	정보통신업	사무직	없음		대면
4443	서울	남성	30 대	300 이상	정보통신업	사무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대면
	서울	남성	50 대	1~29	제조업	관리직	1 개		대면

휴게실·복지실태 설문조사

동의서 본 설문지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제 ①, ② 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서명 : _____

※ 설문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선택, 기입해 주세요.

[기본문항]

A. 기본 문항

1. 일하는 곳	2.성별	3.출생년도	4.노조가입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세종·충남 관고,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기타 _____	① 남성 ② 여성	□□□□	① 미가입 ② 민주노총 ③ 한국노총

B. 직종 및 업종, 고용형태

1. 본인이 하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생산직 조립, 검사포장, 기계작동, 용접·선반, 미싱
- ② 판매서비스직 도소매, 계산원, 영업판매, 조리사
- ③ 사무·전문직 인사회계총무, 프로그래머, 의사변호사 등
- ④ 기타 _____

2. 주로 하는 일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3. 주요 생상품(서비스) : _____

4. 종업원 수 : _____명

5. 사업체명 : _____

※ 사업체명은 업종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6. 현 직장에 입사한 시기 □□□□년 □□월

7. 고용형태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사내하청, 특수고용, 프리랜서, 파견·용역, 계약직, 시간제)
- ③ 사업주 or 자영업자
- ④ 무직, 실업자

C. 노동시간과 임금

1.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주당) _____시간

2. 교대 근무를 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한 달 평균 월급 (매월) _____만원

※ 상여금·성과급·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

D.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① 본 적 없다 ② 서명만 했다 ③ 교부받았다
임금명세서	① 본 적 없다 ② 보기만 했다 ③ 교부받았다

[휴게실·복지실태]

E. 휴게시간

1. 하루 휴게시간

- 점심시간 _____분
- (식사시간 제외) 휴식시간 _____분
- 야근을 할 경우 저녁 식사시간 _____분

2. (식사시간 제외) 휴게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 ① 회사 규정에 따라
- ② 원할 때 자유롭게
- ③ 업무가 없을 때 알아서
- ④ 업무가 없을 때 관리자 허락하에

F. 복지제도

1. 다음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① 식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교통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휴게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통근 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사내 식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본인 교육(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육아비용·시설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건강 검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사내 의료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⑩ 여름 유급휴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다음 보기 중 가장 희망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입니까?

- ① 식비 지원 ② 교통비 지원 ③ 휴게실 ④ 통근 버스
- ⑤ 사내 식당 ⑥ 본인 교육(비) 지원 ⑦ 육아비용·시설 지원
- ⑧ 건강 검진 ⑨ 사내 의료실 ⑩ 여름 유급휴가

1순위 _____ 2순위 _____

G. 휴게실

1. [공통] 휴게실이 몇 개 있습니까?

- ① 없다 → **5번으로 가세요**
- ② 1개
- ③ 2개 이상

2. [휴게실 있음] 휴게실 상태

	예	아니오
[업무공간에서] 5분 내 거리에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하는 곳에서] 독립적인 공간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원에 비해] 공간이 좁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사 규모에 비해] 휴게실 숫자가 부족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사가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휴게실 운영,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하청업체도 같이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휴게실 있음] 휴게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 ① 매일
- ② 주 1~2회
- ③ 월 1~2회
- ④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3-2.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위치가 멀다
- ② 창고, 응접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③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었다
- ④ 관리자 눈치가 보인다
- ⑤ 바쁘다. 여력이 없다
- ⑥ 기타 _____

4. [휴게실 있음] 협력업체를 위한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같이 사용한다
- ③ 따로 있고, 따로 쓴다

↳ 4-1. 원청 휴게실과 하청 휴게실의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접근성 차이가 있다
- ③ 공간(크기)의 차이가 있다
- ④ 시설·설비의 차이가 있다
- ⑤ 비품의 차이가 있다
- ⑥ 기타 _____

→ **6번으로 가세요**

5. [휴게실 없음] 회사가 왜 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 ① 법적 의무가 아니다
- ② 무관심하다
- ③ 비용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
- ④ 공간이 좁아 설치하지 않았다
- ⑤ 업무 특성상 출장, 이동이 많다
- ⑥ 기타 _____

6.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휴게실
- ② 업무공간에서 업무 중 틈틈이
- ③ 분리된 실내 공간 (탈의실, 탕비실, 화장실, 창고 등)
- ④ 개방된 실내 공간 (복도, 비상구 계단, 자판기 주변 등)
- ⑤ 옥상, 야외, 나무 그늘, 흡연실 등
- ⑥ 차량
- ⑦ 기타 _____

7. 휴게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접근성, 가까운 거리
- ② 적정 면적의 공간
- ③ 충분한 휴식 시간
- ④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
- ⑤ 노사공동 운영, 개선 가능성
- ⑥ 온돌, 냉난방 편의시설
- ⑦ 생활 편의시설 (세면대, 냉장고, 정수기, 락커룸, 안마기 등)
- ⑧ 청결, 위생 (환풍기, 주기적 관리 등)

1순위 _____ 2순위 _____

8.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공단에 공동휴게실, 쉼터가 설치되면 이용하겠습니까?

- ① 이용하겠다
- ②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곳이라면 이용하겠다
- ③ 이용 안 한다

9. 공동휴게실, 쉼터가 설치된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 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안
- ② 자주 가는 식당 주변
- ③ 공원 주변
- ④ 교통이 편리한 곳(출퇴근 교통수단 주변)

10. 휴게실이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도움 안 된다	도움 안 된다	보통이다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①	②	③	④	⑤

H. 기타

- 이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 사은품 쿠폰을 보내려면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는 참여자 모두의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싶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1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존중을 위한 휴게권 보장**

최 정 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1. 휴식의 의미

-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는 의미임. 일하는 도중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임.
- 휴식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쉬고 싶은 보편적 요구이고 노동의 권리임. 따라서, 사업장 규모, 남녀노소, 성별, 직종업종, 직위와 무관하게 사람이라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휴식권 또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특히,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은 안전한 노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안전의 중요 시설임.
- 화장실 한쪽에서 식사가 아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식사하고 폭염을 피하고 강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는 휴게공간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
- 산업단지는 우리사회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전국의 1,200여개의 단지에 제조업 종사자의 50%에 달하는 220만이 일하고 있음. 전통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이고 대부분 소규모 (50인 이하) 사업장이 집합되어 있음.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 휴게여건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휴게권 보장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 휴게시설은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래서 안전한 노동을 위해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화되어야 함. 이는 우리 사회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소기업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어야 하나 법과 제도는 쉴 권리 휴식권마저 차별과 배제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임.

2.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 특성

- 전국 13개 지역 약 16개 산업단지에서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산업단지 노동자를 특정하여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음. 처음 예상과 다르게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었고 한 달여 동안 4,036명이 설문에 참여해 휴게권과 복지에 관한 관심에 매우 높다는 것이 알 수 있었음.
- 43.8%, 즉 10명 중 4명은 휴게시설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56.1%의 노동자가 업무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애초 예상한 것보다 휴게시설 없음 비율이 높게 나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임대료 인상 등으로 애초부터 공간의 부족으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돼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치되어 휴게실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실태조사에서도 휴게실 미설치 이유로 좁은 공간 (33%), 무관심 (28.8%), 법적 의무 아님 (17.5%) 비용 (13.7%) 순서로 좁은 공간과 무관심이 높고 비용문제는 법적 의무 아님은 4순위 나타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화 임대료의 증가 등 공간문제가 있으면 이를 위해 사용주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법적 의무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 고임금(48.8%) 노동자보다 저임금(62.4%)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빈도가 높다는 것임.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기 때문임.
- 휴게실 요건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은 ‘쉴 수 있는 분위기’ (88.3점)로 눈치 보지 않고 쉬고 두 번째로는 휴식시간 (59.8점) 이었음.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 면적, 설치 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임.
-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86.0%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임. 공동휴게실의 설치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3.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행령의 문제점

- 20인 미만 사업장 58.2% 휴게실 없다는 것이고,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40.6% 휴게실 없다는 것으로 나타남. 작은사업장일수록, 저임금(62.4%) 노동자일수록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빈도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휴게실 의무설치 시행령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려 하고 있음. 휴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딘지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음.

○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1. 상시 근로자 20명 사업장을 의무설치에서 제외한 문제

- 다양한 업종과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라 불리는 ‘산업단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 외관은 거대한 신축 건물로 보기에 좋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음. 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7.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화된 서울, 안산, 인천, 광주지역의 공단의 고용인원은 10명 내외임.
- 시행령안에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으로 하면 산업단지는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대가 될 것임.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열악한 곳, 휴식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작은사업장을 배제한다는 것임.
- 부칙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를 하고 있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8%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노동자는 40.4%에 불과함. 대상사업장의 98%는 법이 시행되는 8월에도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임.

○ 인원에 따른 면적 기준이 제시가 없다는 점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의 문제

-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은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적정한 면적에 대해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좁은 휴게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더욱 낮음. 3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0.2%에 지나지 않음. 30~99명 사업장 2.9%임. 특히,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구조 자체가 없음. 이러한 현실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상황에서 법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에 제시되지 않는 현재의 시행령 입법안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도 최소면적인 9㎡의 휴게실 1개만 설치되어도 법 위반에서 빠져나가게 됨.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하며,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2㎡로 명시해야 함.

4. 해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관련 해외 사례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한 나라는 독일(10명 이상)과 일본 (50명 이상)만 있다고 하고 있으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해외의 사례는 자세한 휴게시설 관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기 난방을, 일본은 개인차, 정서에 대한 배려를, 프랑스는 직원 대표와 협의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보면 섬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제대로 쉬기 위한 노력과 실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낮은 조직률, 높은 산재 사고, 사용자 중심의 편향된 지원, 중소기업 비정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현장의 의견과 대변체계가 없는 구조 (초기업교섭,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휴식권을 누리게 하기 위한 국가(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높아져야 함.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보고서 202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 발췌

영국	작업장 (건강, 안전, 복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접근, 충분한 휴게시설 제공, 좌석 - 장애인에게 적합한 좌석, 적절한 접근 -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등받이와 테이블 - 전자레인지 -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 LPG 난방설비보다 전기로 운용되는 설비
일본	노동 안전 위생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 유해작업장의 휴게시설 -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의자 - 수면 및 선잠의 설비 - 발한 작업에 대한 조치 - 휴양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계속적이고 계획적인 대응 노동자 의견 반영 개인차에 대해 배려 정서에 대해 배려</p> </div>
독일	작업장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600유로 이상의 벌금 - 독일 일반작업장 과태료(LASI: 산업안전과 안전기술 위원회, 2019)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사항</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td> <td>5,000유로</td> </tr> <tr> <td>조명의 결여/ 불충분</td> <td>2,000유로</td> </tr> <tr> <td>안전조명의 결여 / 불충분</td> <td>2,000유로</td> </tr> <tr> <td>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td> <td>2,000유로</td> </tr> <tr> <td>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의 결여 또는 불충분</td> <td>3,000유로</td> </tr> </tbody> </table> <p>- 독일 공사현장 과태료(LASl: 산업안전과 안전기술위원회, 2019)</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사항</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다음의 시설들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예: 세면, 탈의, 식사/식수 또는 무알코올 음료 취식을 위한 설비)</td> <td>2000유로</td> </tr> <tr> <td>건강유지에 이로운 호흡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예: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있거나, 습도나 열기가 너무 높은 경우)</td> <td>4000유로</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과태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	5,000유로	조명의 결여/ 불충분	2,000유로	안전조명의 결여 / 불충분	2,000유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	2,000유로	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의 결여 또는 불충분	3,000유로	위반사항	과태료	다음의 시설들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예: 세면, 탈의, 식사/식수 또는 무알코올 음료 취식을 위한 설비)	2000유로	건강유지에 이로운 호흡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예: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있거나, 습도나 열기가 너무 높은 경우)	4000유로
		위반사항	과태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	5,000유로																			
조명의 결여/ 불충분	2,000유로																			
안전조명의 결여 / 불충분	2,000유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	2,000유로																			
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의 결여 또는 불충분	3,000유로																			
위반사항	과태료																			
다음의 시설들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예: 세면, 탈의, 식사/식수 또는 무알코올 음료 취식을 위한 설비)	2000유로																			
건강유지에 이로운 호흡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예: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있거나, 습도나 열기가 너무 높은 경우)	4000유로																			
프랑스 노동법 명령 편 (산업안전보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보건, 식사, 숙박시설 식사 및 휴식)	<p>- 노동자의 작업장 내 식사는 금지된다.</p> <p>- 직장 내 상시 식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위생·안전·근로조건 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식사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동 장소는 10명 이 사용 가능한 식탁, 좌석 및 냉·온 음용수 취수를 위한 수도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동 장소는 음식과 음료의 보존·냉장 수단 및 재가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 직장 내 상시 식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취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p> <p>- 근로활동의 특성상 휴게실이 필요하나 부재한 경우, 위 생·안전·근로조건 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식사 장소 또는 취식공간을 식사시간 이외에 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좌석에는 등받이가 장착되어야 한다.</p>																			

5. 정책 방향과 과제

○ 작은 사업장을 위한 대책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220만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제외하고 평등한 설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과연 대책은 무엇인가?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61%, 고용의 54%를 책임지고 있지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산업재해, 사용주의 각종 법 위반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음.
- 특히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94.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통계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놓인 열악한 환경을 가늠케 함.
- 규모가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등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 법체계에서 산업단지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 가동,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현황

	단지 수	입주 계약 업체(A)	가동업체(B)	고용(명)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국가	47	58,317	53,407	1,073,429	20.1
일반	697	45,173	41,818	1,023,608	24.5
도시첨단	37	1,712	1,537	20,161	13.1
농공	476	7,889	7,168	154,392	21.5
계	1,257	113,091	103,930	2,271,590	21.9

△ 2021년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두 개의 시도에 걸친 산업단지(한국수출, 빛그린, 아산, 명지녹산)는 중복으로 카운트하지 않음.

- 시행령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으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20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와 공동휴게실 설치·운영 또한 제외를 해버리는 시행령으로 사용주는 받아들일 것이 뻔함.
-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한다. 는 내용으로 시행령 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함.

○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휴게시설, 및 휴게여건 지원 및 관리 강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0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안의 시설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함. (산업집적법 제2조15항, 시행령 제5조)
- 산업단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역할 중요함,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각각의 사업체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사업장(일터) 내 휴게시설과 사업장 밖 공동휴게·편의·복지시설 설치, 개선, 유지, 관리

- 실태조사는 휴게실의 미설치 이유를 좁은 공간(33.8%)과 무관심(28.8%)이라 말하고 있음. 또한, 접근성, 독립성,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 개선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음.
- 사업장, 현장의 휴게시설은 가까운 거리,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등 휴식시간,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것임. 이는 휴게시설의 없는 곳은 설치를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은 개선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의 체계 속에서 계획하고 지속 가능한 휴게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관리 점검을 위한 다양한 사업 필요 (지자체 노동 안전 지킴이 등)

- 사업장 밖 공동휴게시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아파트형 공장이 빼곡히 들어 섰고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음. 안산반월공단의 경우 출퇴근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겸비한 공동휴게편의시설이 요구되고, 공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경우는 지역노동자의 만남(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휴게복합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함.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이미 대다수의 아파트형공장이 공동휴게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하고 쾌적하게 마련하고 있음. 민간시장도 이런 추세인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휴게여건 지원 및 유지사업에 지역적 특성과 대상별 사업을 확산해야 함.

○ 노정 협의를 통한 지역노동자의 의견 수렴 정례화

-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연구, 업무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함.
-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입지 정책, 산업단지 개발 정책, 산업단지 조성 정책,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와 같은 중앙정부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관여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문제점은 공적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큼. 구조고도화사업은 공공재인 산업 단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민간기업에 의존하여 이뤄짐으로써 공적 기능 대신 이윤 논리가 지배하게 됨.
- 산업단지는 IMF 이후 구조고도화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 대개조로 디지털·첨단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노동정책은 없어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함. 바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화되는 통로와 체계가 필요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에 근거해 산업단지 유형별로 ‘관리권자’가 규정되어 있음. 정부 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임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인가받은 수많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존재하며,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준 공공기관으로써 총 64개 산업단지(2021년 11월 기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 밖에 지역 일반산단의 경우 지역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존재함.
- 따라서, 노동부, 산자부, 산업단지 관리권자-지역과 업종을 포괄하는 해당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를 정례화해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의 요구와 해결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2

**지역 영세사업장 밀집 공단 휴게 여건 실태
및 개선방안(반월시화 산업단지)**

박 태 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

모든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간과 휴게실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 인권의 문제이며 노동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시흥, 안산지역에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제조업 작은사업장이 밀집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96%를 차지하며 대부분 원청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로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포함된 경기지역 산업단지에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43%(생산직 37%)라는 조사결과(20인 미만 58%)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제조업 현장에서 종일 서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다가 10분의 휴게시간에 편안히 앉을 의자와 공간이 없고, 점심 휴게시간에 몸을 편히 눕힐 공간이 없다는 것은, 섯가루와 비산먼지, 유해물질이 가득한 작업현장 바닥에서 대충 박스 하나 깔고 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마다 박스를 들고 쉴 공간을 찾는 노동자의 모습은 노동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휴식의 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에 있다. 먼지 날리고 제대로 환기도 청소도 안 되는 지하 낡은 탈의실을 휴게실로 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휴게실이 있어도 너무 협소해 먼저 자리잡은 사람들이나 ‘고참’ 들만 쉴 수 있다. 휴게시간이 너무 짧거나 눈치가 보여 휴게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휴게실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월시화공단의 휴게여건과 실태는 단순히 휴게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노동실태와 직결된다. 때문에 문제해결의 방향을 단순히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실이 있어도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상 휴게시간을 규정에 맞게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있고, 작업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무급노동)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알아서 쉬라’ 는 휴게규정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가고 싶은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휴게시설 설치지원 및 개선)

일단, 휴게실 미설치 사업장에 법에 따라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공간과 시설, 청결, 온습도 조건, 비품 등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실 전수조사를 통해 함량미달 휴게실에 대해서도 개선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 실제로 허름한 공간에 낡은 의자 몇 개 놓은게 전부인 휴게실도 있고 관리와 지원이 안돼 무용지물인 휴게실도 많다.

- 거점 공동휴게실 설치(식당골목/ 지식산업센터)

중소영세 작은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접근성이 좋은 거점을 정해 공동휴게실을 설치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밀집지역에는

구내식당을 마련하기 힘든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바둑판 모양의 골목에 블록마다 식당이 줄지어 있다. 식당골목 중앙에 공동휴게실을 설치한다면,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이 형성돼 노동자들의 호응이 클 것이다.

또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층마다 마련된 공동휴게실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여 건강지원센터, 작업복 세탁소, 노동상담소 등 다양한 복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휴게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 공단지역 노동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 지원

공단지역에 들어서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처럼 삭막하다. 공장 굴뚝 여기저기에서는 유해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공간이다.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위해서는 공장 밖의 환경 개선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거리정비나 청소에도 신경써야 하고, 유해물질 배출 단속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단 내 녹지 및 근린공원을 설치, ‘건기 좋은 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 버스 노선확대, 공공 출퇴근 버스 지원 사업을 현실화해야 한다. 공단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뺨뺨한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 버스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피로를 한결 줄이는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도 휴게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노동, 휴게환경 개선사업 반영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활성화 사업(리모델링 사업)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와 국가차원에서 계획, 실행중이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노동자의 휴게환경 개선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확대

노동조합이 있는 큰 사업장 노동자들은 교섭을 통해 휴게권을 확보하고 강제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원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휴게권을 확보하는 문제 뿐 아니라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3

공단노동자들의 실 권리 제대로 마련하라

이 재 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

<모든 노동자의 쉼 권리 차별하는 시행령 입법안, 공단 노동자들의 쉼 권리 제대로 마련하라>

- 인천지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휴게실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와 휴게실 이용의사, 이용빈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4,443명이며 실제 유효응답은 4,021개.

- 첫째, 4,021명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 중 일부는 야외, 카페 등으로 나가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56.1%)은 업무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정부가 제출한 휴게시설 법제화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는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오히려 휴게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장임이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남. 다만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될 시, 당장 올해 8월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50~299인 사업장에도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75.3%로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실이 없는 이유로 ‘비용’ 보다는 ‘좁은 공간’ 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더 많았는데, 이는 다가올 8월부터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안이 될 수 있음.

- 셋째,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의 이용 빈도는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더 높음. 휴게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고임금 노동자들은 외부공간,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공간에서 대기할 뿐임.

- 업무공간에서 대기하는 것을 회사는 선다고 표현하지만 휴식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 근무 대기시간과 다르게 노동자가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쉬어야 함. 그러나 C업체의 경우 노동자 휴게실을 임원 휴연실에 만들었고 D업체의 경우 현장 내 관리자들과의 업무공간을 개조해 노동자 휴게실을 만들었으나 실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매우 적음. 이유는 관리자 눈치가 보인다는 것.

- J업체의 경우 휴게실을 만들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장실을 개조하여 휴게실을 만들었음. 변기에 비닐을 덮거나 의자를 한두개 두는 형식. 이 업체는 물류 작업자들의 휴게 공간 역시 외부에 캐비닛과 의자를 놓고 휴게실이라 칭하고 있음.

- 넷째, 기존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부족한 공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원 대비 면적에 대해서도 44.9% 만이 좁지 않다고 대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규모 대비 휴게실이 넉넉한가에 대해서도 겨우 과반(50.9%)을 넘는 이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함.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응답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심층 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휴게실 사용에 대한 파견노동자 차별 문제도 확인됨.

- 일례로 A업체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노동자는 정규직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없음. A업체의 사

장이 정규직 휴게공간에서 쉬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도급업체 노동자들은 비흡연자임에도 매일 흡연장에 나와 쉬거나 도로 인도변에 앉아 쉬는 것을 볼 수 있음. B업체의 경우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마련하지 않아 청소노동자가 계단 한 구석에 앉아 쉬거나 옥상 계단 등에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다섯째, 휴게실 요건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 것은 ‘쉴 수 있는 분위기’ 임. 쉴 수 있는 분위기관 관리자나 상사, 심지어는 후임의 눈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 여건이 충족시키는 사업장 내 문화일 수도 있음. 사실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고,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그 자체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분위기를 마련함. 휴게실 자체가 ‘쉴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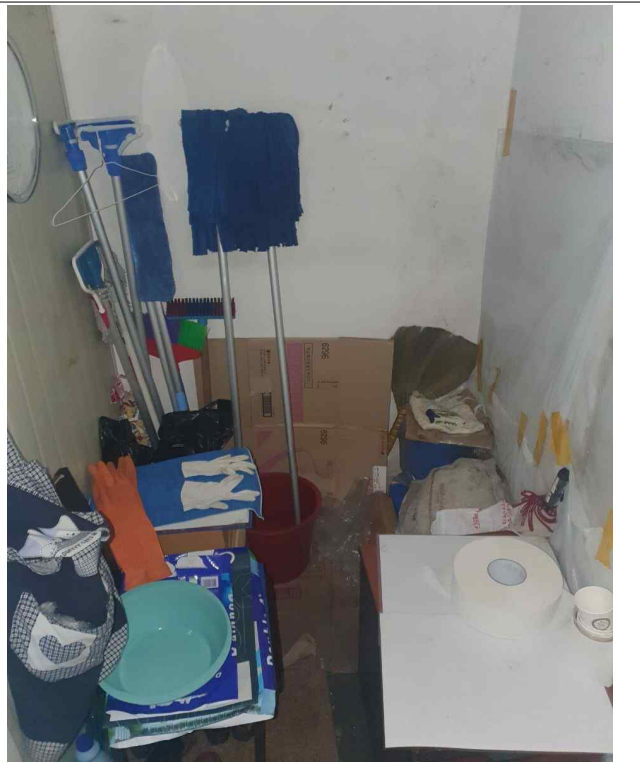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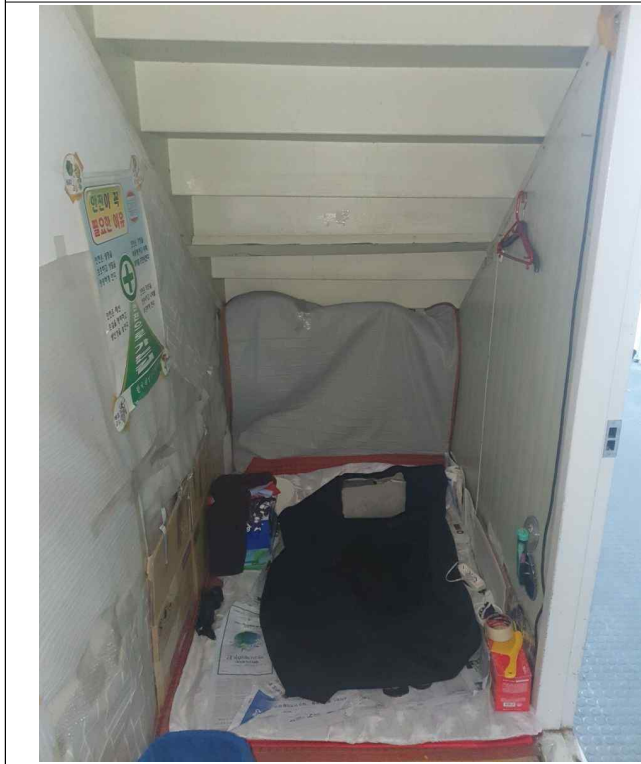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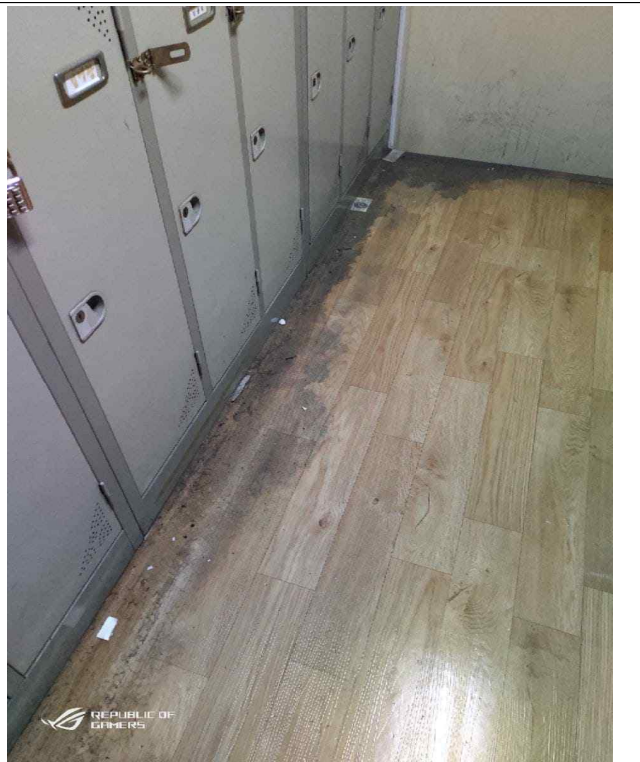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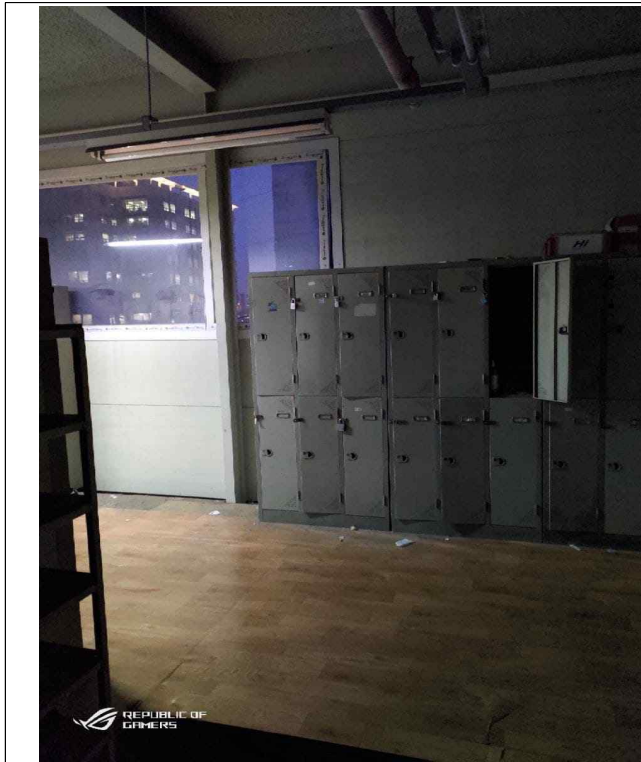
- 여섯째, 공동 휴게실은 이상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중요한 것은 공동휴게실에 대해 사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임. 공간이 좁은 작은 사업장에서의 휴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내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도 공동 휴게실에 주목할 수 있음. 또 공동휴게실은 산업단지 내 다른 공용시설(세탁소, 편의점 등)과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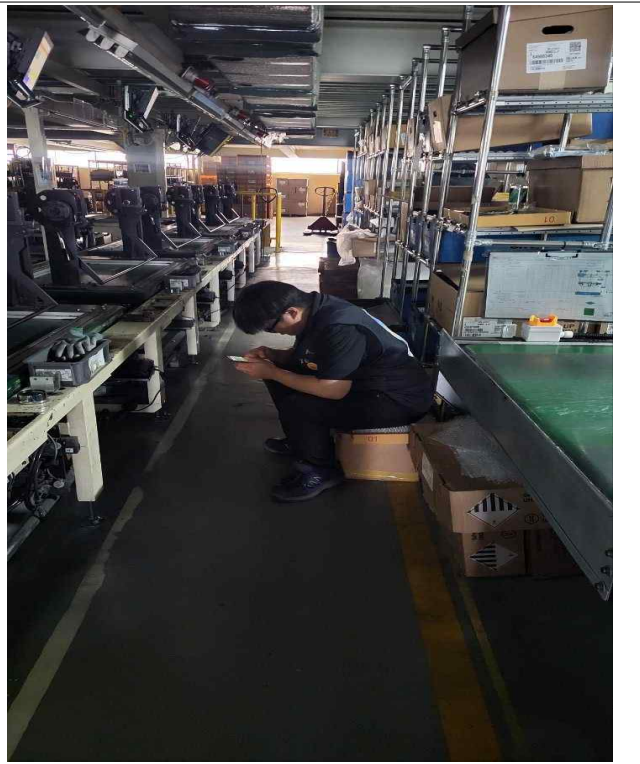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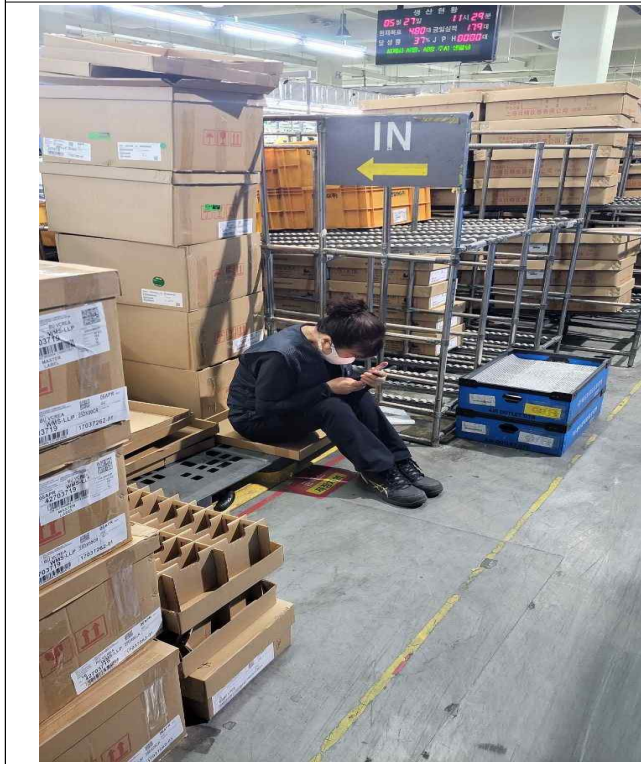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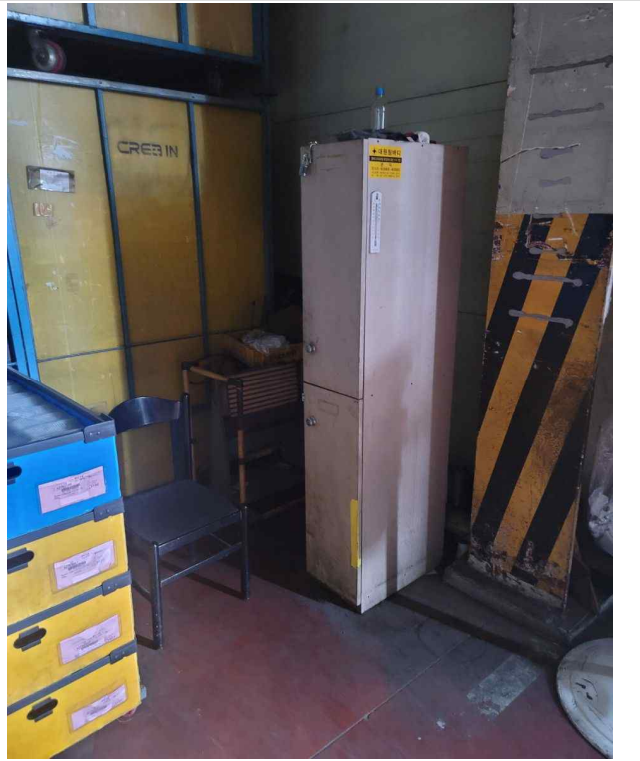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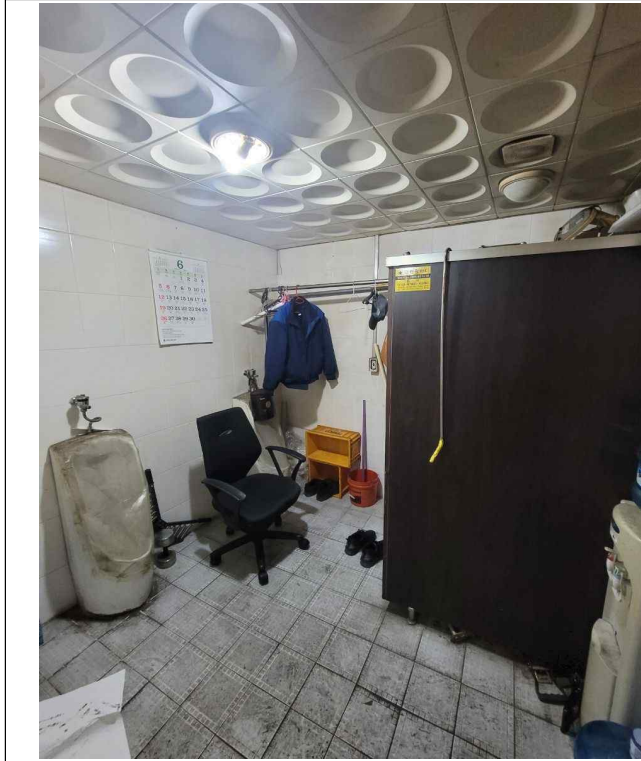
- 부평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 내 공동휴게실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조건, 짐이 있거나 문이 잠겨있거나인데 회사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임. 또한 외부 휴게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공단에 만연한 사례를 봐도 휴게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남.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하거나와 하청·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만연. 한편 노동자들이 휴게실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쉴 수 있는 분위기’ 와 ‘충분한 휴식시간’ 인데, 즉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 충분한 면적,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 생존권과 직결. 한국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창고, 계단 밑, 화장실 한 칸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법 취지에 맞게 누구나 쉴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위해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함. 또한 산업단지 내 휴게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위해 공공휴게시설 등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4

나 상 명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5

김길중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안전한 노동! 실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

토론 6

안 무 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MEMO
